

2025년 1월 6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00호

“대한민국 구할 분은 하나님”… ‘세이브 코리아’ 구국기도회 열린다

준비위, 기자간담회 열고 취지와 일정 등 발표

손현보 목사 “기도로 나라 회복 힘써야”

오는 18일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대표 손현보 목사)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취지와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기도회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다.

‘세이브코리아’는 미국 평론가 고든 창이 SNS를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국가를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결성됐다고 한다. 주요 구호는 ▲기도로 하나님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용기 ▲행동으로 나라를 구하자는이다. 기도회는 오는 18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주, 포항 등 전국 7개 도시로 확대되며, 지역별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인천 자유공원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로터리 ▲전주 풍남문광장 ▲포항 영일대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이진수 대변인의 사회로, 국민의례,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시작기도, 대표 손현보 목사의 인사말, 영상상영, 기획위원장 조평세 박사의 세이브코리아 소개, 준비위원장 흥호수 목사의 기도회 일정 및 지역 대표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을 전한 손현보 목사는 “정치의

생태계 안에는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있고, 그 국민 안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바로 직전에 있다. 중국을 보면 교회를 불사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잡잡하다. 만약 여기서 교회마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바른말과 생각 그리고 기자관을 전파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다. 3.1운동 때에도 교회가 주도하여 독립을 외치며 독립의 타당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며 “교회의 침묵의 대가로 7천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수치스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어느 정치 단체가 주장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독재에 가까운 일을 해선 안 되며, 그런 단체가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저항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위법불법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이 줄을 서서 말 한 마디 못하고 따라가고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임원들 단체 사진 ©김상고PD



손현보 목사 ©김상고PD 조평세 박사 ©김상고PD 흥호수 목사 ©김상고PD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사상도 통제 받는 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왜 교회가 나서느냐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내보낸다면 이후 사람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비난할 것”이라고 했다.

손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악한 아합왕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며 “그 결과 인생의 생사화복과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그는 “오늘 11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프로그램은 1부 메시지와 2부 우리들의 목소리 순서로 나뉘

어 진행된다. ▲1부 메시지는 찬양과 경배, 특별공연, 청중합심기도, 손현보 목사의 메시지와 합심기도, 유만석 목사의 메시지와 합심기도, 박한수 목사의 메시지와 합심기도 및 마무리기도 순서로 진행되며 ▲2부 우리들의 목소리 순서에선 공연, 흥보영상, 취자문 발표, 윤상현 의원인요한 의원·조평세 박사·김은구 대표·손영광 대표 등의 발언과 합심기도, 책읽는사자·정대교·청년이영준 대표 외 청년발언, 광고 및 공연, 애국가제창 등으로 진행된다.

조평세 박사는 세이브코리아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을 낭독했다. ▲SAVE KOREA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구국기도회이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선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것을 선포한다.

이어 기도회 일정에 대해 소개한 흥호수 목사는 “1차적으로 오는 11일 서울은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기도회를 하고, 18일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주, 포항 등에서 함께한다”며 “2월부터는 매일 집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오는 11일 기도회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특히 젊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 외에도 공연팀과 목회자·전문가들의 발언

이 있다. 이 부분은 매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목사는 “우리 안엔 보수·진보 성향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은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께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비상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엔 없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국가비상기도회는 무엇이 잘못됐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다. 또 다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광장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며 “우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국회의사당에서 매주 모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암 5:24’해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 서면로터리,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인천 자유공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라를 구해 주소서’(SAVE KOREA)라고 기도하게 된다”고 했다.

행사는 질의응답, 황선아 사무국장의 광고, 공동준비위원장 주요셉 목사의 식사기도 순서로 모두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2면 장요한 기자

“대통령, 직무 정지됐으나 국가 원수·헌법기관… 체포 어불성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치주의’를 표방한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법치주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123 계약 선포로 인한 문제점은 여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치주의의 국가에서 법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 관련 ‘내란죄’는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확정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약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적 판단이니,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붙는다.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에 대하여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탄핵했다. 그것도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것이 아닌, 국무총리급으로 취급해 탄핵시켰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들은 이미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약

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여러 명의 검사들, 임명되자마자 잘못을 할 겨를도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직위의 감사원장; 그리고 야당 대표를 쳐다보았다고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29명에 대한 탄핵을 낭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지만, 이때 대통령 한 명에 대한 탄핵으로 끝났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런 탄핵정국으로 나라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법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출동하였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공수처는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그런데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기고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장 발부를 허락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 못함)와 제111조(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를 예외로 한다는 기가 막힌 적시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삼

권분립의 파괴로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당하지 않는 한, 국가 원수이다. 지금도 직무는 잠시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원수이다. 아주 중요한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재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체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소위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악한 의회의 폭거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왜 이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 현 정권을 하루 속히 무너트리려는 책동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탄

핵해야 한다는 선동에만 훈클리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은, 법관들이 법과 정의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멀리하고, 선동하는 것에 놀아나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국가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어려울 때,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온 경험이 많다. 지금 바로 그런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내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현재의 시간’을 맞이한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공정심과 헌법의 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

약 7만 7천여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3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Emons

에몬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수사는 위법”

세이브코리아준비위·수기총 등 1,200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작금의 국회는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운동권·주사파 출신들이 가득한 국회는 돌멩이 대신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정신

연령은 여전히 80년대”라며 “거대 야당이 독재자가 되려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에 침몰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재판을 위한 기소 단계도 이르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내란수고로 몰아서 탄핵을 소추하고, 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내란수고로 수사하고 있으며, 언론도 여기에 부화뇌동 가세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고 호칭을 기사 제목에 대서특필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법 28조 4항에서 형사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의 무죄주정의 원칙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나왔다”며 “그런데도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받아쓰기 하듯 내란죄로 단정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는 언론이 자신의 책임을 배임하는 언론독재”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소추되자 언론들은 공의 대신 사의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을 예시로 들면서 “제4의 권리인 언론이 또 다른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권을 떼리”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명시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루는 어떤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이런 반 협법적 폭거야말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행위로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평화와

정의를 넘치게 하시길 간구한다”고 했다.

심하보 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무죄주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재판 없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를 떼야 한다”며 “한법재판소 재판관은 양심에 부끄러지 않게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언론은 양심을 속이고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고 진실을 보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도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릴 것”이라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에, 작금의 혼돈도 머지않아 잠잠하게 하실 것”

이라고 했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거짓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질서를 훼롭고 북한과 중국에 비굴하게 굽고 있으며 간첩마저 잡지 않는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독재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이해가 된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현문란 세력은 탄핵남발, 예산안 감액, 간첩죄 반대 등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세계성시화, 무안 항공기 참사 유가족 등에 위문품·성금 전달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자원봉사단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서기 신철원 목사, 회계 김용 장로, 다음세대위원장 이정준 목사, 최성균 목사,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조성덕 목사, 사무총장 박정완 장로, 여수성시화운동본부장 이승필 장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사무

총장 이광식 장로, 재무국장 김영애 권사, 세종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염세열 목사, 민들레기도팀장 곽주현 사모 등이 함께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 휴대용 물티슈, 휴대용 화장지, 음료수, 감귤, 에너지바, 카스타드, 치약, 칫솔세트, 바나나, 에너지바 등과 성금을 전달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다. 항공기 참사로 큰 충격과 슬

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고수습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는 “이번 참사로 우리 교회 집사님

의 딸도 희생됐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유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조인성 목사(무

안서부교회)는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희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매일 김밥 1,000줄을 보내주신다”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방문단은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시무하시는 목포하당제일교회 황모집사 부부가 머물고 있는 쉘터를 방문해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황집사 부부는 이번 사고로 딸을 잃었다고 한다.

이어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김원아서

삼석 국회의원, 김대중 교육감, 김성장 흥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을 만나 사고대책

현황을 청취하고 함께 기도했다.

이날 위문품과 성금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전북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도경 목사), 익산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윤호웅 목사), 여수성시화운동본부, 세종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임공열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들레기도팀,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회장 정금열 목사), 전남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광종철 장로), 여수시조찬기도회(정완훈 목사), CBMC전남부연합회(회장 문태석 장로) 등이 후원에 동참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자원봉사단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유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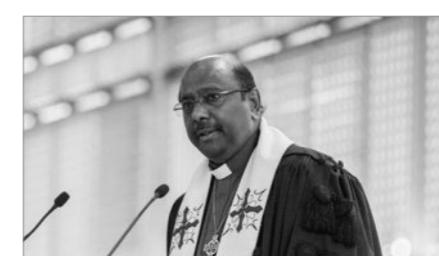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코로나19 전달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에게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진영 기자

WCC “무안 여객기 참사, 비통함 금할 수 없어”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리 필레이 총무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에 대해 애도 서신을 최근 발표했다.

제이 필레이 총무는 “지난해 12월 29일 주일 우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접하며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참사로 인해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큰 아픔과 무거운 슬픔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체는 희생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비극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과 헌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



제이 필레이 총무. ©WCC

망을 주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걸어온 길을 되새기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불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며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 국가적 애도

의 시간을 이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WCC 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우리는 성령의 위로가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부상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고통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국 시민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구세군,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위한 구호활동 진행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구세군대한본영(사령관 김병운, 구세군) 긴급구호팀은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관계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구세군은 하루 1,000여명이 식사할 수 있는 끼니를 유가족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세군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세군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얀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혼란한 시기, 믿음 갖고 부르짖자”

12시간 연합기도회 ‘2025 원크라이’ 열려

2025 제9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ONE CRY)’가 ‘바람같이 불같이란 주제로 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11시까지 양양 새중앙교회(담임 황덕영 목사)에서 열렸다.

원크赖이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 기도운동이다. 해마다 새해를 기도로 열며 국가의 현안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이다.

이번 기도회는 시간순으로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말씀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박동찬 목사(일산광림교회), 권오국 목사(이리신광교회), 한홍 목사(새로운교회), 박진석 목사(포항기쁨의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선포한다.

경배와 찬양은 CCC노아더네임, 로드웨이브워십, 더위십플레이스, 위십파스, 블로잉워십, 브이워십 등이 예배의 문을 연다. 또한 이철규, JCC뮤지컬, 김브라이언, 강중현, 장한이, 개그맨 이정규 등이 특송을 올린다. 기도회는 문은수 목사(과림교회), 오인석 목사(능곡감리교회), 조정환 목사, 김세진 목사, 홍상선 목사 등이 이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다음세대 등을 위해 기도한다. 특히 다음 세대는 절망의 시선이 아닌, 이들이 새로 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기도회가 세워지기 바라며 기도했다.

◆최고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기”

첫 설교자로 나선 김병삼 목사는 ‘최고이신 성령님을 존중하기’(요14:26-27)란 제목으로,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며 평안을 누리길 권면했다.

김병삼 목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뜻을 몰라서 금식기도까지 하는가, 아니

실제 결정은 어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은 확답을 받고자 합인가, 아니면 응답을 받고자 합인가”라고 반문하며 “로버트 틸만 켄달이 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내린 것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오류를 많이 이 행했던 것 같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모든 결정을 내리시도록 하면 평안이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목사는 “우리가 성령을 믿고 경험하기 위해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접해 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면서,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어디에 평안함을 주시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둘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 성령님과 친밀해 지면 마음이 편안하다. 성령님을 존중하며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2025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성경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접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면서, “우리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양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금식기도까지 하는가, 아니

면 그 뜻대로 살기가 버거워서 결단치 못해서 하는 기도인가? 우리 인생에서 결단만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참 많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양도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고 일침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박동찬 목사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출17:10-13)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기도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을 강조했다.

박 목사는 “오늘 이 자리는 각자가 결단하고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이 기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남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을 언급했다.

박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메시지를 예언하는데, ‘그래도 너희는 이같이 이뤄질 것을 믿고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예언의 성취가 시간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르심이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어떤 묘수와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답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목사는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기도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위험한 영적 신호이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



2025 제9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ONE CRY)가 ‘바람같이 불같이’란 주제로 열렸다. ©원크라이



김병삼 목사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권면했다. ©원크라이



박동찬 목사는 기도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을 강조했다. ©원크라이



권오국 목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며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원크라이

면류관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진 네 번째 세션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다섯 번째 세션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 세션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다.

백선영 기자



버스킹에 참여한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크리스마스이브, 신촌에서 라이프워커 크리스마스 버스킹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미혼모 후원 위해 크리스마스 썰 제작 판매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대표 최다솔)가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간, 서울 신촌 명물쉼터에서 라이프워커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진행했다.

학회는 이날 스크린을 설치해 버스킹 노래와 함께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영상을 송출했다. 버스킹

노래 또한 부모와 아기의 관계, 출생 후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들로 선정했다.

버스킹 진행 중 ‘임신 몇 주차부터 아기 심장이 뛰는지’, ‘수정된 후 착상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깜짝 퀴즈와 선물전달을 통해 시민들에게 태아생

명의 소중함과 임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버스킹 현장 옆에서는 ‘연말전후원’이라는 흥보 퍼켓과 함께 직접 제작한 크리스마스 썰을 판매했다. 이 크리스마스 썰은 미혼모 가정 후원을 위해 제작됐다. 모금된 후원액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에 전액 전달될 예정이다.

최다솔 대표는 “이번 크리스마스 버스

킹은 핫한 저녁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오고가는 많은 시민들이 버스킹을 지켜봐 주셨는데, 특히 커플분들이 버스킹 노래 가사와 아기 영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 적게 발생해서 낙태가 작년보다는 더 줄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소규모 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안내

설치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건강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운영인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 전액무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오전9시 ~ 저녁9시)
※센터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사전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대표번호 : 1577-6497

주요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건강센터(분소) 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사업장 요청 시 이동상담 서비스 제공 가능

분야별 전문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 노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
· 직업환경 및 생활습관(금연, 운동, 영양, 절주) 개선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를 통한 직업병 예방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자

※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사전문의(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영산신학원,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故 영산 조용기 목사가 생전 설립한 유일한 신학교인 순복음영산신학원(총장 장혜경 목사)이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영산, 총회장 김홍원 목사) 종회 인준 신학원인 순복음영산신학원은 지난 42년간 7천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신학원에는 신학부와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과정과 사이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신학부(주야간)는 신학, 선교학, 목회상담학, 찬양학, 멀티미디어학 전공이 있으며, 신학원 졸업생들을 위한 M.A. 과정과 일반 정규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M.Div(목회학석사) 과정의 목회대학원은

목회학, 멀티미디어학, 목회상담학 전공으로 구분된다. 목회박사원에서는 D.Min. (목회학박사) 정규과정과 연구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이버 과정의 경우 신학부부터 목회대학원, 목회박사원 과정의 전공 및 응시자격과 동일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신학부 내에 다양한 전공을 개설했다. 신학부의 경우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신학을 연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진리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실천하는 말씀 선포와 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소개했다.

선교학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선교역사를 고찰하고 성령으로 뒷받침하고 활용하게 한다고 한다.

순복음영산신학원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현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목회상담학은 목양에 필요한 돌봄과 상담이론을 이해하고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도우며 성경적 원리와 방법으로 전인구원의 치유와 회복을 인도하는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며, 찬양학은 기독교 신앙과 찬양을 연구하고 재능을 키워 교회사역에 필요한 음악적 소양과 신앙을 겸비한 예배 찬양 전문가로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이 밖에 멀티미디어학을 통해 현시대와

미래 목회에 활용되는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실습해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 성서교육 외 필요한 자료를 창의적

으로 뒷받침하고 활용하게 한다고 한다.

순복음영산신학원은 정규 수업 외에도

1일 3시간 영성훈련(성경 통독, 성령불기 도회, 예배)과 매주 금요 철야기도회를 비롯한 산상 기도회와 전국 전도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영성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복음영산신학원은 특히 '5.3.4. 영성 훈련'을 실시한다. 5.3.4란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죽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삼중복음(영혼이 잘 될 범사에 잘 될, 강건한 삶), 4차원의 영성(꿈, 믿음, 생각, 말)을 의미한다. 학교 측은 "철저한 영성훈련은 기성성 외 다른 교단에서도 큰 호응을 얻는 순복음영산신학원 만의 자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장 목회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무행정, 회계 관리를 비롯한 교

회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과정을 개설해 방학특강과 일일특강 등을 통해 교육하며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총장 장혜경 목사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목회를 지향하며 조용기 목사

님의 영성과 신앙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

국을 넘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꾼을 길

러내고 있다"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이어지는 목회와 사역이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흔한 이 나라와 민족을 말

씀으로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

회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다"면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사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순복음영산신학원은 오는 2월 8일 서

울 양천구 소재 신학원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2월 14일 접수를 마감한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동문, 기타 다

양한 장학금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입학

상담 02-711-0091).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진 모씨와 이 모씨가 순복음영산신학원 관계자에 대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24카합2022)'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진 모씨 등은 순복음영산신학원과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순복음영산신학원의 이사장, 운영이사의 직무를 이모 목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진 모씨 등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김진영 기자



목원대학교 2025 신년예배 진행 사진. ©목원대

목원대, 신년예배로 새해 시작

이희학 총장, 대학 발전과 혁신전략을 강조하며 전 구성원의 협력 당부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가 새해를 맞아 최근 채플에서 신년예배를 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예배는 권진구 교목실장의 인도로, 특별찬양(소프라노 박희경바리톤 손차윤)과 박준선 김독(울산반석교회)의

원사업, 브랜드가치 향상과 경쟁력 강화

를 핵심 주제로 제시하며,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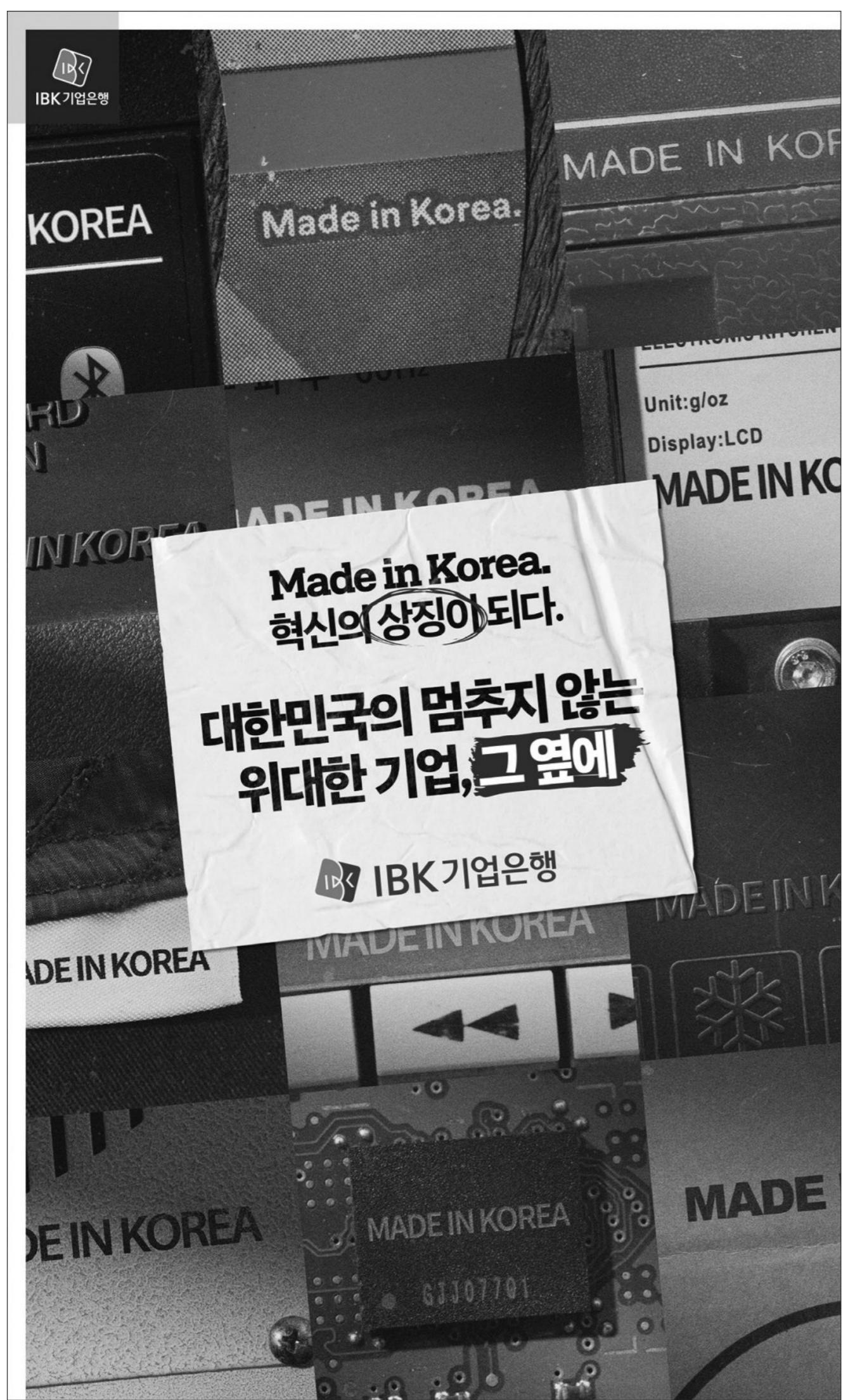
이 총장은 "우리를 둘러싼 여건과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더 선명하고, 일치된 목

표와 전략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71년 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목

면 우리의 더 나은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개인과 학교, 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신년을 맞이했다.

한편, 목원대학교는 지난달 31일 종무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했다. 종무 예배에서는 조재민 총학생회장의 기도와 김영준 노조지부장의 성경봉독, 직원 중장단의 특별찬양 등이 진행됐다. 또한, 표창장 수여식이 열려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장요한 기자



서울신대, 2025학년도 시무예배 드려

서울신학대학교(황덕형 총장)는 최근 본관 소강당에서 '2025학년도 시무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신년 축하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예배는 김성준 교목처장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찬송과 신앙고백, 교도문을 포함한 예배 후, 이용호 교목처장의 기도와 성경봉독이 이어졌고, 이사장 한기재 목사의 말씀과 함께 예배가 마무리됐다.

'위기를 기회로(마14:27-33)'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사장 한기재 목사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시험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위기를 통해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경력이 될 수 있다"며 "위기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다.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도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가면 넘어지더라도 목적이 있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2부 신년 축하식에서는 황덕형 총장이

서울신학대학교 2025학년도 시무예배 진행 사진. ©서울신대

새해 인사를 전한 후, 케이크 커팅과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었다.

장요한 기자

한일장신대, 시무감사예배로 2025년 새해 시작

한일장신대학교가 최근 황기주기념채플에서 시무감사예배를 열고 2025년 새해의 희망과 각오를 다졌다. 이번 예배에는 온상진 이사장 겸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교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김성준 경전실천처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김인 대학원장의 기도, 온상진 이사장의 설교와 축도로 이어졌다.

'다시 살아나리' 제목으로 설교한 온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즉 신관(神

은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적 사명을 가진 책임있는 존재로서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는 일에 함께 하자"고 전했다.

또한, 온상진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위한 연구, 신입생 모집, 근무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오찬을 함께했다.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은 교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강의를 위한 연구, 신입생 모집, 근무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오찬을 함께했다.

장요한 기자



이사장 온상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한일장신대

포항목회자 축구단, 선린대에 장학금 전달

선린대학교(총장 곽진환)가 최근 총장실에서 포항목회자 축구단(회장 김윤걸 목사)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김윤걸 목사는 장학금을 전달하며 "작은 금액이나마 기독교 후학양성을 위해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곽진환 총장은 "하나님의 대학 선린대학교

에서 목사님들의 뜻을 잘 받아 하나님에 자녀로 키울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목회자 축구단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선린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통해 선교와 친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요한 기자

포항목회자 축구단이 선린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린대



한남대 최인식 교수, 한국정보기술학회 신임 학회장 취임

한남대학교 전기전자 공학과 최인식 교수(사진)가 2025년 1월 10일자로 한국정보기술학회 신임 학회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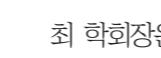
최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정보

기술학회 학술활동을 통해 모든 학회 구성원들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IT분야 최고의 학술 교류 단체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보기술학회는 2002년에 창립되

어 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IT분야 대표 학술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7,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5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장요한 기자



수단 난민 여성, 개종 후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신앙 지켜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수단 난민으로 남수단에 거주 중인 한 여성이 무슬림 남편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칼에 찔리는 공격을 당했으며, 현재 매일 개종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할리마 모하메드 알리(Halima Mohammed Ali)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1살 반에서 14살에 이르는 다섯 자녀를 둔 어머니로 남수단 수도 주바(Juba)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고롬 난민 정착촌(Gorom Refugee Settlement)에 머

물고 있다. CDI는 공격 이후 집을 떠났던 알리씨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알리 씨는 “그때는 남편을 떠났지만 한 달 후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이슬람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CDI는 알리 씨가 지난 6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난민 캠프 내 교회에서 수단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그녀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리씨와 함께

했는데, 지난 9월 8일 밤, 남편이 알리의 오른쪽 머리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CDI는 알리씨의 남편의 무슬림 친척들이 그를 내쫓으라고 남편을 압박하며 “기독교 여성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알리 씨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단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그녀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리씨와 함께

그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남편이 주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DI는 알리씨와 그의 가족은 지난 2023년 5월 수단에서 벌어진 전쟁을 피해 약 1만 명 이상의 다른 난민들과 함께 고름 정착촌으로 피신했다고 밝혔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RSF)과 수단군(Sudanese Armed Forces, SAF)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같들은 수단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통치를 나눴던 두 세력이 군대 구조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1,220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갔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보고했다.

CDI는 수단 기독교인은 무슬림 공동체와 국가 기관 모두로부터 종교적 이유로 폐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법”에 따라 낯선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군대에 의해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수단은 8위를 차지하며, 종교적 자유 개혁이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거나 않은 채 비국가 단체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수단은 2019년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독재 체제가 끝난 이후 몇 년 동안 종교적 자유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슬람 범야리야의 가장 억압적인 측면이 돌아올 위험에 처했다. 현재 수단의 기독교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4,300만 명 중 약 4.5%를 차지한다. 최승연 기자

2025년 유럽 전역 연합기도주간,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는 연합기도주간이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진행된다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독일어권 복음주의 연합단체들이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기도와 묵상을 돋기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CDI는 기도 소책자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11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밝혔다. 소책자는 짧은 글 성찰 질문, 기도 제안, 실질적인 팁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해를 낙관적으로 시작하도록 돋는다. 해당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라고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

CDI는 이번 기도주간의 주제는 “희망”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희망이 필요한

곳과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고 밝혔다. 스위스 복음주의 연합(SEA)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된 희망의 기초가 됨”을 강조했다.

SEA는 뉴스레터에서 “오늘날 많은 전쟁, 위기, 재난으로 인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독교 신앙이 희망을 제공하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CDI는 이번 행사가 스위스 전역 및 국경을 넘어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로 연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EA 공동 사무총장 비비안 크루카보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다”며 희망이 공동체의 강력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기도주간은 1846년에 시작된 글로벌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일환으로,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는 연합기도주간이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진행된다. 사진은 해당 행사의 소책자.

©Schweizerische Evangelische Allianz

로,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희망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SEA는 이번 주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위기와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기독교 희망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희망

최승연 기자

국가조찬기도회, ‘2024 연말연시 밥사랑 잔치·선물전달식’ 가져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가 지난달 30일,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쪽방촌 독거어르신을 위해 ‘2024 연말연시 고독생프로젝트 밥사랑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소셜서비스 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더 신한대 K-뷰티 학과 교수)를 비롯해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신생평나무교회 목사)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등이 함께 협력했다.

이날 장현일 목사는 “국가적 위기와 어려운 시기에 와롭고 소외된 어르신분들께 사랑의 밥과 특별한 선물을 드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독거어르신들이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찾고 영육간 강건하시도록 더욱 섭이며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 정재원 사무총장은 “해돋는마을의 고독생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



2024 연말연시 밥사랑 잔치와 선물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돋는마을

지만 사랑으로 따뜻한 식사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에스더 학장은 “사랑의 밥과 유난히 추운 겨울을 녹이는 사랑의 선물에 감사 드린다. 또한 취약한 환경의 독거어르신분들께 K뷰티 소셜서비스를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밥사랑 잔치에는 장민혁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 장민숙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세진 영양사, 이강학 봉사단장, 최원희 강사, 조승희 강사, 이상신 노인대학 반장, 박순덕, 김은희 등 많은 봉사자가 참석해 밥과봉사와 함께 거동불능한 독거 어르신께 선물과 도시락을 배달했다.

김진영기자

의성성광교회, 관내 취약계층에 1천만 원 기부

의성성광교회(목사 이정락)가 지역 내 취약계층 20가구에 각 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의성군은 이번 성금이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지원되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겨울나기를 돋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광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장학기금과 난방비로 2000만여 원을 맡긴 데 이어, 2020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을 꾸준히 기부해왔다. 현재까지 총 7000만 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사진은 권정일 의성읍장(왼쪽)이 김은희 어르신(오른쪽)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의성군

이번 나눔 실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온정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나눔 문

화를 이끄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락 목사는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권정일 의성읍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성광교회 목사님 및 신도들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나눔의 손길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대한민국과 북한 구원 위한 리빌더 구국기도회’ 2일부터 열려

‘흑암에 빠진 대한민국과 북한 구원을 위한 리빌더 구국기도회’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리빌더처치에서 21일 동안 진행된다.

리빌더처치 담임 크리스강 목사는 이번 리빌더 구국기도회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한반도에 임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흑암

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선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소년 다니엘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사사시대 엘리의 시대 가운데 소년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다”고 했다. 이어 “정치나 경제도 아니다. 애굽의 왕이나 바벨론의 왕도 아니다. 지금은 금송아지 우상을 볼 때가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통회 자복함으로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사사로이 행했던 모든 거짓된 종교 통합 더러운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북한 땅 70년 흑암의 장막과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흑암의 권세를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오직 예수로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EDIYA STICK COFFEE
우석이가 만든 커피 한 잔

COFFEE MIX
EDIYA 스페셜 골드블렌드
리치크레마 커피믹스

STICK COFFEE
EDIYA 스틱커피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EDIYA COFFEE

• 제품의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2025 신년 하례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1일 오전11시 뉴욕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2025년 신년 하례 예배를 드렸다. 퀸즈장로교회의 2025년 표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다. 이날 예배에서 김성국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국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과 22절을 본문으로 삼아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올해 교회 표어와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한 김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움직일 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

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절저히 순종했고, 그의 삶은 찬양과 기도로 가득했으며, 실수를 했을 때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김 목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역설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 개인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설교 중 김 목사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깊은 신앙적 묵상을 나눴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김 목사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이 단지 고난으



퀸즈장로교회가 1일 오전11시 본당에서 신년하례예배 드렸다. ©교회 측 제공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와 교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더욱 충실히 순종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건강상의 도전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우

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길을 열어 주신다"는 고백을 전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설교를 마치며 김성국 목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그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자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자녀들 축복하며 신년 맞은 한인동산교회 '예수는 내 구주'



한인동산장로교회가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회 측 제공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풍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폴리 목사(왼쪽)가 동시통역을 했다. ©교회 측 제공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가 2025년 새해를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와 함께 맞았다. 한인동산장로교회는 12월 31일 오후 8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었다.

2025년 교회의 표어는 '예수는 내 구주다. 이풍삼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 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다. 동시통역은 폴리 목사가 맡았다.

이 목사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다. 저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모세

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 왔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4년에 많은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셨고, 2025년에도 지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혹시 가정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가족과 성도들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가정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앞으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풍삼 목사와 성도들 또한 참석한 2세들 및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다.

이풍삼 목사는 '예수, 내 구주'를 올해 표어로 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올해 2025년 표어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 성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더욱 예수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팔죽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신년을 맞았다. 예배 후에도 성도들은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축복하면서 한인동산장로교회의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대원 기자

평소의 성실함과 겸손이 이끈 종교를 초월한 크리스마스 메시지

뉴욕 맨해튼의 한 금융회사 사무실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이슬람과 힌두교를 믿는 직원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서석열 장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종교와 문화의 벽을 초월한 존중이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서석열 장로는 현재 뉴욕 웨체스터 지역의 한 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 소속으로 꾸준히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필요하면 주말에도 교회 일을 돋고 있다. 한 국교회에서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는 한인들에게는 특별히 화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인 기독교인의 꾸준한 신앙생활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종교를 믿는 직원들은 그의 헌신적인 태도를 존경하며, 그를 가리켜 "리스페트(존경한다)"라고 말하곤 하는 것이다.

단지 신앙심만 투철해서 이런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서 장로의 따뜻한 배려는 신앙의 테두리를 넘어서다. 해외 출장을 갈 때면 그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 동료들에게 나눠주며, 일상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며 그의 동료들 사이에 신뢰와 존경을 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서 장로는 이와 같은 배려가 "적극적인 전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석열 장로의 메시지에 성탄축하와 함께 새해 인사를 하는 타종교인들의 메시지가 가득하다. ©서석열 장로 제공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결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교회의 오랜 신앙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으로도 타종교인에게는 위대한 신인으로 비쳐진다는 점과 작은 실천이 모이면 종교의 벽을 넘어서도 큰 감동을 만든다는 사실은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

한편, 서 장로는 자신의 회사에서 내려오는 오랜 기독교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으로도 타종교인에게는 위대한 신인으로 비쳐진다는 점과 작은 실천이 모이면 종교의 벽을 넘어서도 큰 감동을 만든다는 사실은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신앙인이 가져야 할 덕목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 그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인 뉴욕 라이프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현직과 은퇴 직원들이 합창대를 구성해 회사 건물 로비에서 헨델의 메시야 중 '할렐루야'곡 합창을 선보인다. 서 장로는 이러한 전통을 통해 미국의 신앙적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제112차 세계선교연대포럼 4일 열려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전하는 선교협력 네트워크인 세계선교연대(이사장 이선구 목사, 대표 최요한 목사)가 새해를 맞아 4일 서울 명동 서울프린스호텔에서 제112차 세계선교연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안정과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등을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포럼 참석자들이 나라를 위해 통성기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계선교연대

한희성 장로(명동국제교회)의 찬양 인도에 이어 강창렬 목사(세계선교총회신학원 원장)의 인도로 드려진 1부 예배는 고종숙 장로(한국사회시민단체연합 총재)의 대표기도, 조윤하 전도사(명동국제교회)의 바이올린 연주, 찬양사역자 정은영 전도사(명동국제교회)의 특송에 이어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대신대 총장)가 설교를 전했다.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나이다’(시 36:9)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정 박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의 위기를 맞았다.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속속 귀국하고 한국교회는 점점 연약해지는 가운데 있다”라며 “복음을 받지 못해 어두움이 장악한 세상의 모든 인종, 국가에 여호와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년 한 해 교회도 힘들고 이 나라 조국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자유대한

민국이 잘못하면 무너지는데 교회는 말이 없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흑암으로 출발을 향하는 오늘, 주의 광명 중의 광명을 본다는 다윗의 말대로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성령의 인도와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죄를 밟아래 짓밟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세선연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선희 중국 선교사의 헌금기도와 조윤하 전도사의 헌금송 연주, 김주덕 장로(국제선교신문 사장, 명동국제교회)의 광고에 이어 정운진 인도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주덕 장로는 “오늘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2부 선교포럼 및 사역소개를 인도한 세선연 대표 최요한 목사(명동국제교회)는 “여러분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박재

천 목사(문인교회)는 성시낭독 시간에 새해 기원 시를 낭독했다.

세선연 이사장 이선구 목사(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사장)는 이날 어지러운 정국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존속되고, 자손들에게 기독교 국가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눈물을 뿐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님의 광명으로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릴 수 있도록 1분 통성기도를 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국제선교협의회 회장 이종득 장로는 “금년 한 해 작년보다 세선연을 통해 더 많은 선교사님과 모든 성도님이 쉼을 얻기 바란다”라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나라가 혼탁해져 있는데, 이럴 때 믿음의 성도님, 목회자님의 기도밖에 없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전국원로은퇴장로회연합회 전 회장 박석환 장로, 한국신학연합회 직전 대표회장 탕명진 박사, 한국사회시민단체연합 총재 고종숙 장로가 인사하고 배성미 필리핀 선교사, 최선희 중국 선교사, 최은혜 태국 선교사가 사역 보고를 했다.

최요한 목사는 “우리나라가 다음세대를 위해라도 자유민주주의로 가야지, 공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사회주의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나라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통성기도를 하고 오찬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113차 세계선교연대포럼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2층에서 진행된다. ©이지희 기자

안보칼럼⑦ 국가보훈과 국립묘지(21) 독립유공자와 국립묘지

독립군 본받아 나라와 세계선교 위한 비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독립운동은 명성황후 시해를 계기로 일어난 1차 을미의병(1895)을 시작으로, 을사늑약에 저항하여 일어난 2차 을사의병(1905), 군

이범희 목사 대해산으로 출발된 3

차 정미의병(1907) 등으로, 20년에 걸친

의병전쟁으로 약 20만 명이 희생되었다.

1918년 2월 11일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은 약소 민족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1919년 2월 8일 선언에 이어 국내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하여 100만 명이 참여한 1,600회의 거국적 비폭력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으로 결집된 민족의 역량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

졌다.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중경까지 10여 곳을 옮겨 다니며 27년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7년 1월 순국선열의 안장이 가능하도록 군묘지령이 개정되었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장이 되지 못하다가, 1962년 원호법이 개정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고 1962년 3월 11일

김재구 지사가 처음으로 안장되었다. 그는 31운동에 참여하고 1920년 철원 애국단 사건으로 4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곳 독립유공자 묘소는 1964년 3월을 시작으로 1966년 28위, 1967년 14위, 1968년 20위를 안장했는데, 이후 김동산, 노백린, 박은식, 서자필, 신규식, 이상룡, 장인환, 전명운 의사 등의 유해가 봉환되

면서 애국지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성지가 되었다.

독립유공자 묘소는 국립 현충원 외에도 효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망우리 역사문화공원, 도산공원, 신암 선열공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에 신재해 있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 안중근의 묘소가 있다. 안중근의 묘는 기묘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수유리) 선열묘역에는 김도연, 김병진, 김병로, 김창숙, 서상일, 신숙, 신의희, 신하균 부자, 양일동, 유림, 이시영, 이준, 조평숙 등 15위가 있다.

방우역사문화공원에는 문일령, 박찬익, 방정환, 서동일, 오세창, 유상규, 한용운 등 15위가 있다.

서울 강남 도산공원에는 안장호, 이혜

련 부부 합장묘가 있다. 안장호 유해는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부인 이혜연 유해는 로스엔젤레스에서 모셔 왔다.

국립묘지로 승격된 대구 선암 선열공원에는 임용상 의병장을 포함하여 52위가 모셔져 있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어네스트 베델영국과 호지 헐버트(미국) 등 외국인 독립유공자가 안장되어 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는 선산이나 연고지 등에 안장되어 있다. 권세연(양주), 기삼연(장성), 김동신(장수), 김복한(홍성), 김좌진(보령), 김창균, 김석현(나주), 김하락(서천), 노용규(서천), 민금효(원주), 민용금(산청), 박상진(경주), 박자정(밀양), 손병희(서울 우이동), 신체호(청원), 신남일(장수), 안계홍(보성), 양진애, 양상기(광주), 여운형(서울 우이동), 유근(용인),

유인석, 유흥석(춘천), 유중안(가평), 이장년(상주), 이규감(아산), 이석용(임실), 이석(홍성), 이소옹(제천), 이유사(안동), 이운영(양평), 김백선(양평), 이한용(용인), 전태산(장수), 정한직, 정용기(영천), 채광복(용인), 최의현(예산), 허위(구미)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김약연, 송봉규, 윤동주 등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 있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묘소도 적지 않다.

독립운동은 애국계몽운동, 의병전쟁, 의열투쟁,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무장투쟁, 미주 독립운동, 국내 사회문화투쟁 등으로 이어졌으며,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침체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국내 항일운동은 노동운동, 문화운동, 민족말살정책 반대투쟁 등으로 전개되었다.

조선말 외세의 침탈로 위기를 맞은 유림은 위정적사파와 개화파로 나뉘어 활동하다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으로 합류한다. 위정적사파는 재야 유림이 중심이 된 것으로,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충군, 애국사상에 기초한 것이고, 개화파



신임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경제,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혼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증경회장(증경대표회장) 문세광 목사, 증경상임회장 김동원 목사, 증경공동회장 김원식 목사는 지난 12월 21일 김성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하고 증서를 전달했다.

김성만 목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후원이사장으로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섭렵했다.

또 20년 가까이 누가선교회를 이끌며 국내외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와 구호 봉사, 복음전도 사역을 펼치고, 누가의료선교재단에서 누가줄기세포병원, 치과, 피부과, 요양원을 운영하며 원로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누가신학대학원 총장으로 목회자, 선교사를 양성하며, 교단 소속 신학교 30여 곳이 모인 한국신학연합회 제3대 대표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성만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령으로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혼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으로 선임하고 증서를 전달했다. 김성만 목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후원이사장으로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섭렵했다. 또 20년 가까이 누가선교회를 이끌며 국내외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와 구호 봉사, 복음전도 사역을 펼치고, 누가의료선교재단에서 누가줄기세포병원, 치과, 피부과, 요양원을 운영하며 원로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누가신학대학원 총장으로 목회자, 선교사를 양성하며, 교단 소속 신학교 30여 곳이 모인 한국신학연합회 제3대 대표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성만 목사는 “예수님의 지상령으로 국내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팬데믹 이후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계도 혼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지희 기자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

콜롬비아 복음주의 목사 가족, 교회 예배 후 살해 당해

콜롬비아 북부에서 복음주의 목사가 정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교회 예배를 마친 후 레스토랑 밖에서 살해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탑승한 총격범은 아과치카(Aguachica) 시에서 평화의 왕자 벨리파리파이(Prince of Peace Villaparaguay) 교회의 목사 밀론 로라(Marlon Lora)와 부인 울리 린콘(Yorley Rincon) 그리고 딸 양겔라 로라 린콘(Angela Lora Rincón)을 살해했다. 그 아들 산티아고 로라 린콘(Santiago Lora Rincón)은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영국에 소재한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로라 목사와 그의 교회가 IBM(선교사 성경 교회) 교파에 속해 있었으며,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걸쳐 약 30개의 도시와 농촌 교회를 여행하며 감독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의 감독관인 조반니 베르무데스 목사는 로라 목사가 다른 목사들에 가해질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아과치카(Aguachica) 목사 협회 회장인 디비나트 알폰소 칼레 목사에 따르면, 로라 목사와 그의 가족은 아과치카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소중히 여겨졌다. 양겔라는 아과치카 공공 서비스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전문가로 일했고 산티아고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학생이었다.

스페인 매체 엘 페스(EL País)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가족 살해에 대한 정보제공자에게 최대 5천만 페소(1만 1천 달러)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아과치카의 그레이시 로케메 시장은 지난달 29일 통금령을 선포했다.

로케메 시장은 “폭력이 우리의 희망을 훔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국가 정부,



로라 목사와 가족들. ©CSW.org

국방부 장관, 군대가 아과치카에 주의를 기울이길 요구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과 내무부 종교국장인 알렉산더 하이메스도 이 사건에 반응했다.

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력과 위협의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종교지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탕글은 “정부가 종교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진 아과치카 지역과 같은 무장 단체와 갈등 후 협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개별 평화 협정의 틀 안에서 종교 부문의 희생자들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콜롬비아 옴부즈만 사무소는 2023년에서 2024년 간 종교 자유 권리 침해가 31%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교회와 종교 단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종교 지도자와 당국에 대한 살해 위협”이 포함된다. 2023년에서 2024년 간 살해 위협은 50% 증가했다.

CSW에 따르면, 로라 목사 가정 살해는 최근 몇 달 동안 콜롬비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치명적인 폭력의 우려스러운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경 기자

2025년이 많은 교회에 중요한 한 해가 될 5가지 이유

‘처치앤서스’(Church Answer) 설립자 이자 대표인 톰 레이너(Tom Rainer) 목사가 최근 ‘2025년이 많은 교회에 중요한 한 해가 될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40년간 목회를 경험한 레이너 목사는 개교회와 교회 리더십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 실제적인 자료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다음은 칼럼 전문이다.

2025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모이는 듯하다.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12가지 이슈를 꼽을 수 있지만, 다섯 가지가 가장 가능성성이 높은 것 같다. 그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반드시 폭풍우 구름은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다.

1. Z세대의 복음에 대한 더 큰 수용성

1997년과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성인과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Z세대로 알려진 그룹을 구성한다.

처치앤서스의 연구와 라이언 버지(Ryan Burge) 외 몇몇이 수행한 작업은 적어도 Z세대가 복음에 더 수용적이라 는 것을 암시한다. 이 기회가 얼마나 좋 은지 과장할 수 없다. 1년 전, 우리는 교회가 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외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하



©pixabay

도록 돋기 위해 ‘호프 아너셔티브’(The Hope Initiative)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1천5백개가 넘는 교회가 30일 챌린지에 참여했다. 많은 교회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 성인과 청소년에게 다가갔다. 마태복음 9장37-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관계성이 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2. 미국에서 약 1만5천개의 교회가 더 이상 전임 목사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에 있는 37만5천개 교회 중 4%가

전임 목사에게 급여를 지불할 자금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변화는 엄청나고,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의 절반 이상이 전임 목사에게 급여를 지불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타임 목사 모델이 지배적인 모델이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3. 이중직 목사(bivocational pastor)

라는 용어가 시리지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리지어야 한다. ‘이중은 두 가지를 의미하며, 많은 파트타임 목사가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더 정확한 용어는 ‘공동직’인데, 이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가진 광범위한 용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업계에서 정규직을 맡고 있는 동시에 두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실제로 말을 타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순회 목사의 현대적 표현에 더 가깝다. 교회는 파트타임 목사 모델로의 이러한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델이다. 그것은 곧 자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4. 교회에 목사가 없는 공백 기간이 18개월보다 길어질 것이다.

실제로 점점 더 많은 교회가 2년 이상 목사 없이 지낼 것이다. 임시 목사의 역할은 2025년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단과 네트워크는 공동 작업 교회, 순회 교회, 임시 교회가 봉사하는 회중과 관련이 있도록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전통적 모델 교회에서 전임 목사가 봉사하는 교회의 시대는 곧 사라질 것이다.

5. 약 1만5천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 교회들 중 다수는 끈기 있게 버텼지만, 임박한 폐쇄에 직면한 교회의 수는 증가했다. 현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1만5천개 교회가 1년 동안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1만5천개 교회가 문을 닫고 1만5천명이 전임 목사에서 파트타임 목사로 옮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3만개 교회는 기존 교회 12개 중 1개를 나타낸다. 이 변화는 극적이 다.

이미경 기자

마이크 존슨, 트럼프 지지 업고 美하원의장 연임 성공

최소 과반인 218표로 119대 의회 하원의장 선출

첫 투표에서는 공화당서 3명 이탈해 216표 그쳐

투표 종료않고 설득해 2명 번복… 트럼프 직접 통화

미국 119대 의회가 개원한 3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당내 반대표로 제동이 걸리는 듯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원하면서 존슨 의장은 216표를 얻는데 그쳤다.

존슨 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218표를 얻어, 215표를 얻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를 제치고 선출 됐다. 하원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21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선출이 가능했으나, 2명만 이탈해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탈자들과 통화하며 마음을 돌렸다는 후문이다. 낸시 메이스(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셀프 의원, 랄프 의원과 직접 대화가 이뤄졌다고 CNN은 전했다.

이후 셀프 의원과 랄프 의원이 첫 선택을 뒤집고 존슨 의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존슨 의장 선출이 선언됐다.

존슨 의장은 2016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됐고, 2023년 10월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에 의해 중도 해임된 후 후임으로 선출됐다. 미 하원의장은 미국 권역서열 3위로 뽑힌다.

이윤희 기자



시간의 가치로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곳

롯데캐슬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쌓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품격은 어제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LOTTE CASTLE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하이마트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체험을
더 쉽게



로보락 & 샤크까지
글로벌 브랜드를
더 쉽게



수리·클리닝·이전설치
가전 케어를
더 쉽게



다양한 가전을 편하게 비교하고 체험해 보세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前 美정보국 北담당관 “北, 트럼프 취임·韓 혼란기 틈타 도발 가능성”

사일러 “3~5월 北 도발 예상… 美, 韩 보복 대응 자제 압박할 것”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커졌다고 경고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2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베레스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적 행동을 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장기적으로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한국의 탄핵 진행 상황과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그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가자, 중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국내 이슈들도 처리할 것이라 산만하고 한국 정부는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보복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한국에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와 군을 당황케 하고 모욕하며, 핵무기 보유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보복이나 비용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상을 강화하여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30년동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치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핵보유국으로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 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 ©뉴시스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결렬의 근본 원인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하고,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하는 미국

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김정은은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회담장을 나갔고, 이것이 2019년 이후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논쟁을 환영한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이 핵개발을 시작하면 북한이 ‘쓰거나 잊거나(Use or lose)’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금 당연히 한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국도 그러한 길로 가게되면 북한은 딜레마에

빠진다”며 “그들은 한국이 더 많은 지원을 지녔기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따라서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기 전에 북한이 상황을 이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무역적 자 해결에 매우 진지하고,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510억달러였다는 점,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 이하라는 점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더욱 공평한 분배를 위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에 있었다. 협상 끝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건재했고 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지도 SMA 협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높았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40년 넘게 한반도 문제를 다룬은 사일러 전 담당관은 CIA 출신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국무부 6자회담 특사, 주한미군 고위분석관 등을 역임했다.

1982년 19살의 나이로 주한미군으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후 연세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15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했다. 현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SIS는 그를 “미국 내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박용국 기자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검찰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오동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윤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 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지난 3일 경찰 특수

단을 동원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체포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영장담당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했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이 경호처장의 공무원 또는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뿐만 아니라 흔든 중대사건”이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 등 동조세력을 업고 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

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며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또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해 체포 구금하려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부지방법원 판사 1명의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된 체포영장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쌍특검법 재표결 이번 주 추진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 후 법안 처리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행 체제 아래서 국회로 반려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이번 주 내로 추진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 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8개 반려 법안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애수 수용되며 어려울 것으로 보고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법의 재표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그로 알려졌다.

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표결에서는 내란특검의 경우 5명, 김건희특검의 경우 4명의 여권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즉시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란특검의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해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객기 참사로 인해 연기된 대정부질문도 이번 주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3일 경제 분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국가애도기간 선포로 취소된 바 있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용국 기자

법원, 동계 휴정 종료…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재판 본격화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항소심 등 정치권 관련 재판 잇따라



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사건의 범위와 복잡성으로 인해 최대 2년의 심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해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형사재판은 16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다. 김 전 장관은 주요 내란 혐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로, 그의 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는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대장동’로비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등이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다.

박용국 기자



자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 가격안정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교육

농업소득 안정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현황

2015년 인삼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개 품목의 의무자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한국인삼협회
- (사)한국차자조회
-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 (사)한국딸은감협회
- (사)한국양파연합회
- (사)한국마늘연합회
- (사)한국포도협회
-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
- (사)한국참외 생산자협의회
- (사)한국난재배자협회
- (사)대한두채협회
- (사)한국진환경경농업협회
- (사)한국백합 생산자중앙연합회
- (사)한국키위연합회
- (사)한국배연합회
-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
- (사)한국사과연합회
- (사)제주감귤연합회

자조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율적 수급조절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과 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지원

소비 홍보

품목에 대한 소비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캠페인, 판촉행사, 언론홍보 등

품질 개선 등 조사 연구

품질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창구 단일화 등 유통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교육 및 정보 제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교육과 품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국고 매칭 지원

CES 2025, AI 확산과 양자컴퓨터가 핵심 테마로 부상

국내 7개 기업 최고혁신상 수상… 증권가, 관련 종목 주목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가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고도화와 확산을 중심으로 한 혁신 기술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운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헬스케어 분야의 첨단 기술이 대거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양자컴퓨터 분

야가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면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기조연설과 참가 기업들의 기술시연, 미래 사업 방향성 발표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CES에서는 전 세계 19개 기업이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이 중 국내 기업이 7곳이나 포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3 프로'로, SK텔레콤은 모바일 사기 방지

AI 소프트웨어 '스크램블가드'로 수상했다. 용진싱크비의 AI 기반 디서플랫폼 '북스토리', 고스트패스의 온디바이스 생체인증 솔루션, 슈프리마의 금융 범죄 예방용 AI 모듈 'Q-비전프로', 니어스텝의 '드론 긴급 출동 기지', 한양대의 이명치료장치 'TD스퀘어'도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증권가에서는 CES 관련 유망 종목 발굴에 적극적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를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미래로봇주진단을 신설한 것이 국내 로봇 관련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과 아마존과 협력 개발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마이코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CES에서 AI의 확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5G, 스마트시티, 로봇, AR-VR-XR,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지속가능성, 푸드테크, 인간 안보, 우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며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30조 배 빠른 연산 능력을 보유한 혁신 기술로서, 비록 현재는 상업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기술력



과 개념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나래 기자

육아휴직 사용, 기업 규모 따라 큰 격차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육아휴직과 유연근로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5일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율은 78.9%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55.7%는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23.2%는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 대

한 질문에는 61.4%만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해 실제 이용 가능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는 전년보다 8.9% 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20.9%는 '일부만 사용 가능', 17.7%는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5~9인 사업체에서는 55.4%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94.1%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5~9인 사업체에서 22.6%에 달했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정'이 36.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직장 분위기와 문화'가 33.0%, '대체인력 부족'이 26.0%를 차지했다. 일부는 '주가 인건비 부담'도 이유로 들었다.

육아휴직 이후 근로자의 복귀와 배치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원직 또는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한다는

기업은 68.5%였으며, 22.6%는 '회사의 인사 상황에 따라 결정', 8.8%는 '본인 희망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답했다.

복귀 후 지속 근무 비율은 71.8%로 가장 높았지만, '복귀하지 않고 퇴직한다'는

이나래 기자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나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체계적 신용평가 필요성 제기

최근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 제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5일 "저신용자의 경우 보통 여전히 대출 제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5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대출 제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단기, 소액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권 대출의 금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 대부업 활성화와 우수 업체 선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원장은 정치권이 금리 정책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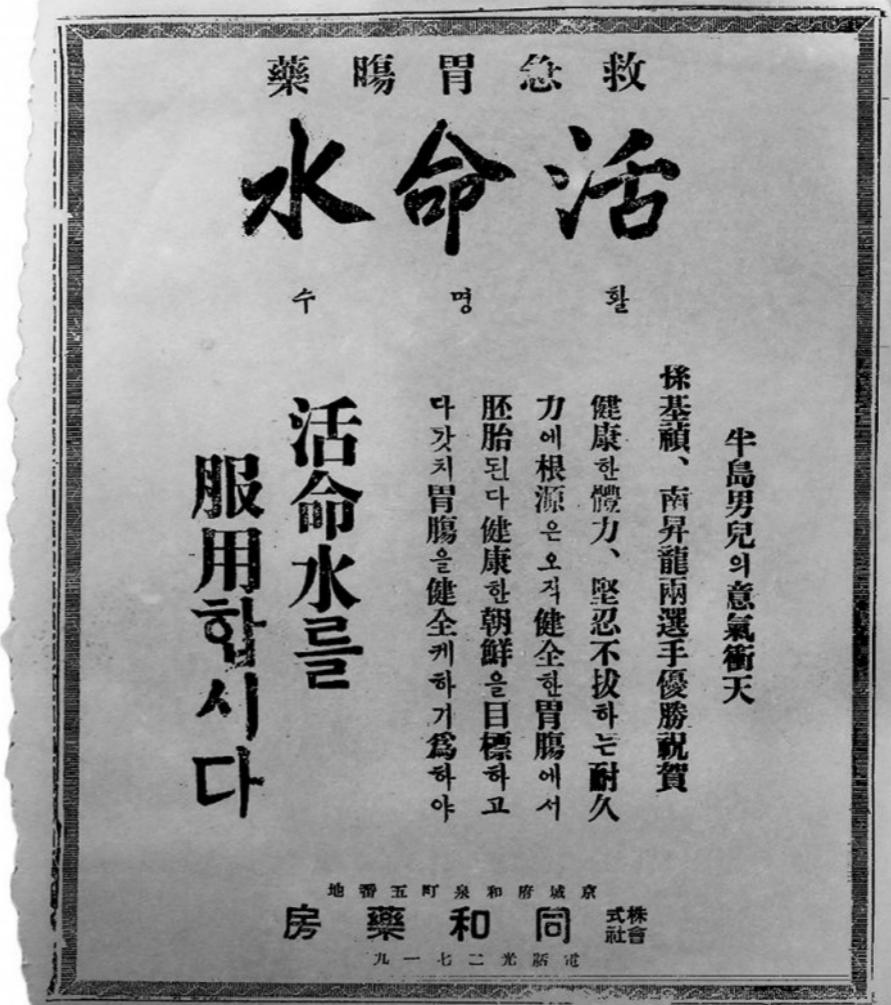
하되, 서민 대출에 한해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신용자나 신용평가 기록이 없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제도권 금융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2조210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41억 원(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2% 줄어든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7년 6조8000억 원이던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21년 10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52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나래 기자

※ 저신용자 흥행 조사 결과는 소비자금융 기사 세부 내용과 일치합니다. 구글 구글 사용 조건입니다. WHA-1802-2024-04-04-0001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손기정 우승 축하
동화약품 일간지 광고 (1936년)

2차 의료개혁 방안,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안 윤곽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통제…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 포함

정부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의료개혁 방안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신설하고, 비중증 질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실손비급여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고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고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새로운 실손보험 체계인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문제 가 적지 않아 왔다. 이러한 과잉 진료로 인해 실손보험료가 상승하고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내 관리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 급여는 선별급여 제도의 하나로, 경제성이 불확실한 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잉 이용을 억제한다. 또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항목까지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병행진료 제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비급여 치료와의 동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실손보험 체계는 비중증 질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를 폭넓게 보장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개혁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료사고신의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독감 확산 속 감기약 매출 급증… 편의점, 긴급 의약 플랫폼 역할 강화

2016년 이래 최대 독감 유행, 상비약 판매량 급증

겨울철 인플루엔자(계절 독감)가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로 확산되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진통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운영 시간이 아닌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특히 편의점이 긴급 의약 구매처로 주목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12월 22~28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73.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31세 환자 비율이 151.3

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독감 확산과 함께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편의점에서의 관련 상품 매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GS25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감기약 매출이 전주 대비 34.4% 증가했으며, 타이레놀 등 진통제 매출은 26.2% 늘었다고 밝혔다. 전월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감기약과 진통제 매출은 각각 96.1%, 65.5% 급증해

증해 독감 유행의 영향을 실감케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 매출도 같은 기간 각각 102%와 53.4% 증가했다. CU 역시 감기약 매출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7.4% 늘었으며,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배, 꿀물, 도리지 등 따뜻한 음료 매출도 10.8% 증가했다고 전했다.

편의점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13종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며 약국 운영 시간이 아닌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긴급 의약 구매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동화약품

호주 기독교 자선단체 보고서 “기독교인들이 더 희망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국제 기독교 자선단체인 Tearfund Australia의 새 보고서 “Global Hope Report 2024”에 따르면, 여러 문제로 인해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기독교 신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자국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더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DI는 이 보고서가 NCLS Research가 진행한 2024년 호주 커뮤니티 조사(ACS)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도전 과제, 기후 변화에 대한 반응, 개인 및 지역 사회, 호주, 그리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호주인의 인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24년 4월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영성과 관련된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희망을 세상에 구현하도록 초대하는 메시지다.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글로벌 문제는 전쟁과 갈등(63%), 경제(47%), 빈곤(39%), 그리고 기후 변화(37%)였다. 또한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측하며,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불평등 심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날씨,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특히 빈곤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비 상승과 같은 여러 상호 연결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는 호주인들에게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보고서는 18-34세 연령대 중 3명 중 2명 이상이 기후 변화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총 77%가 이와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종교적 신념이 있는 호주인들과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해 각각 70%, 74%가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는 비기독교 종교를 가진 호주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으며, 그 비율은 전체 평균 66%와 비교해 86%에 달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기후 위기와 관련해 성경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재앙과 불의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살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역 사회와 호주,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더 큰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살아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CDI는 호주인들의 희망 수준은 신앙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세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개인 신(神)을 믿는 호주인: 27.8% ▲무신론자: 16.2%

호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개인 신을 믿는 호주인: 42% ▲무신론자: 29%

지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 ▲개인 신을 믿는 호주인: 45% ▲무신론자: 28%

보고서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세계, 호주, 그리고 지역 사회의 미래에 대해 가장 희망적이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종교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희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덧붙였다(16%).

보고서는 희망이 가장 낮아질 때 이를 지탱해주는 요소로 개인적 신앙과 규칙



Tearfund Australia의 새 보고서 “Global Hope Report 2024”의 갈무리. ©Tearfund Australia Global Hope Report 2024

적인 기도 생활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어둠에 위축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며, 엣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셨다. 또한, 성령을 보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평화를 살도록 도우신다.”고 밝혔다.

CDI는 보고서가 개인적 제자도와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희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는 마크 헨콕 CEO(사진)의 기고글인 ‘2025년, 우리가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In 2025, why we should embrace discomfort)’를 지난 3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을 지나며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싸워야 했다. 모든 집을 배낭에 짊어진 채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나누던 이들은 여정이 끝날 무렵, 현지 여성들에게서 “아제 그들을 소년이 아닌 남성이라고 불러야 해요”라는 말을 들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했다. “물론 한 번의 도보 여행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이들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자신감을 얻으며, 살아 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변화는 여정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웠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고통을 이겨냈고, 스스로 도몰랐던 강인함을 발견했다.

2025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하는 세대를 키워낸다면 어떨까? 가족이 공유하는 도전을 통해 더욱 끈끈해지고,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강인함을 찾는 해가 된다면?

불편함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

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긴 하이킹 후 느껴지는 발의 고통, 텐트에서 맞는 쌀쌀한 아침, 또는 빙하 강을 건너기 전의 두려움.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용감하고, 강인하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도전은 꼭 아이슬란드를 횡단하거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 주말 캠핑, 하루 동안의 하이킹, 심지어 뒷마당에서 나무집을 짓는 일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이 실제적이고, 함께하며, 우리를 안락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다.

도전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야외 활동을 계획해 보길 바란다. 극적인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가족과 함께 하이킹을 가거나 정원을 시작해 보길 바란다. 혹은 Trail Life USA 같은 지역 단체에 참여해 보길 바란다.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

부모로서 이런 모험은 또 다른 선물을 제공한다. 바로 자신도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때로는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미친 짓 아닌가?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 있

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바로 그게 핵심이다. 우리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용기를 보여주고, 불편함에 맞서는 법을 가르치며,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는 법을 배우게 된다.

올해, 우리 아들들과 스스로에게 도전이라는 선물을 주시길 바란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분명할 것이다. 용감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정을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을 가족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최승연 기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새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는 제임스 케네디 미니스트리의 아웃리치인 프로비던스 포럼의 전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리 뉴컴 이사(사진)의 기고글인 ‘새해를 위한 멋진 목표(Here's a great goal for the New Year)’를 2일(현지시간) 게재했다.

뉴컴 이사는 수석 프로듀서와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새해를 맞아 향후 12개월 동안 새로운 목표를 고민할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목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다수와 같은 길을 걷는 선택이기도 하다.

미국 독립운동가 페트리 헨리는 유언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겼다. “이것

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유산이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들에게 진정한 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던 이 위대한 인물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전했다.

조지 워싱턴 역시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83년 6월, 독립전쟁 승리 후 주지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스

리는 주를 그의 거룩한 보호 아래 두시고, 우리가 모두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축복받은 종교의 신적 저자(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본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겸허히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여기서 “평화로운 마음의 성품(pacific temper of mind)”은 평화롭고 온화한 마음을 의미하며, 조지 워싱턴은 국가가 그리스도의 밭자취를 따를 것을 독려한 것이다.

◆건국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고(故) 노널드 S. 루츠 교수는 그의 저서 미국 헌정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에서 건국 초기 미국은 도덕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했으며, 이는 자발적인 종교 — 주로 기독교 — 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사상가로 알려진 토마스 제퍼슨은 “내가 관찰한 고대와 현대의 모든 도덕 체계 중, 예수의 체계만큼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루츠 교수는 또한 미국 건국 당시 덕목(virtue)이 정치에서 중심적인 개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덕목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 정의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거짓말이나 도둑질, 간음을 피하며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미국 역사 속 많은 위인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 목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삼는 것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란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해제권 예입 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감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율을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지원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계엄 vs 탄핵, 그리고 삼권분립

김민호 목사
회복의교회 담임



작금의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돈 상태에 있다. 혼돈이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무질서다. 기존에 지켜지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옮은 대로 움직여질 때, 그것을 무질서라 한다. 이런 무질서의 흐름을 혼돈이라 한다.

그러면 무질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치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우주를 지탱하던 법칙들이 깨지면 온 우주의 행성들이 자기가 돌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과 같다. 행성들이 원래 궤도에서 이탈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행성을 유지하던 중력과 대기와 흐름이 다 망가진다. 행성과 행성이 충돌하여 파괴된다. 그 결과 모든 것들은 혼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소멸로 간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 이 혼돈이 대한민국의 소멸로 가게 될까 두렵다. 이 두려움은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혼돈을 제어하는 쪽에 서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대통령이 혼란의 원흉인지, 아니면 국회가 혼돈의 원흉인지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법과 질서를 따지면 간단해진다. 작금의 문제는 법과 질서를 따지기보다 개인의 이념과 감정과 이익이 앞선다는 데 있다. 우리

가 자신의 이념과 감정과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혼돈은 지속된다. 고로 우리는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명쾌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법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작금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결코 혼란스러울 것도

없다. 법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일단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뒤돌아보자. 그 당시 상황을 뒤돌아 보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타산지석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그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을 보면 모든 절차와 질서가 무시되었다. 무지한 국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선동에 휘둘려 혼돈에 가세했다.

우리가 지난 박 대통령 탄핵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법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에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실제로 없는 짜증이 수준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카더라 통신에 근거한 국정논단이었다. 애석하게도 대통령 탄핵 후 몇 년이 지나, 이 모든 주장들은 법원으로부터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허용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탄핵 표결로 몰아갔다. 언론은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식을 여과 없이 보도하며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앞장섰다. TV는 연신 시위를 생중계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자행을 저질렀다. 생중계 가운데 어떤 장면은 목이 잘려 피가 흐르는 박 대통령의 머리를 헛수한 모형도 보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중국 문화대혁명을 보는 듯 했다.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근거 없는 소문만 듣고 '저런 놈은 죽여라'고 외치는 인민재판이 서울 한 복판에서 재현된 것이다. 이들에게 어떤 합리적인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헌법재판관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공포에 고개를 숙인 재판관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가운데 지켜왔던 법리와 질서를 다 포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면 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린 후 누군가는 큰 이익을 보았고, 피해는 고

스란히 국민들의 뜻이 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보면 동일한 오류를 또 범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한다. 우리는 과거의 오류를 거울삼아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과 탄핵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삼권분립이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인가? 입법부(국회)의 횡포는 박대통령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입법부(국회)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 계엄령을 내란죄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불법으로 오인하도록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하는 정당한 통치행위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지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설혹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 우스운 사실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죄를 범했다는 유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입법부는 국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탄핵 표결을 감행했다. 그것도 한 번 표결에 부결된 것을 재표결하여 탄핵 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 회

기에는 한 번의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국회의장 주도로 어긴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회는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켜 작금의 대 혼돈이라는 시궁창으로 국가를 몰아간 것이다.

국회의 반 헌법적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대통령 대행으로 세워진 총리가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탄핵을 했다. 대통령 대행 탄핵까지도 불법적 방식으로 강행했다. 그 결과 총리 다음 사열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 혼돈 상태를 야기했다. 이렇게 하여 거대 야당인 입법부 국회의원 무리들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이다. 이것을 입법부 독재라 한다.

이제 삼권분립의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보루로 사법부에게 우리가 기대할 뿐이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또 다시 거대 야당의 횡포에 굴복하여 현정질서를 포기할 것인지 바라볼 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이 무너졌다면, 이제 사법부가 다시 권력의 분립을 이루도록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부디 삼권분립의 고귀한 유산을 또 무너뜨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 사법부가 되길 소망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남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기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 19:15)

위대한 기업을 넘어 영원한 기업으로(16)

신동만 장로
국군중앙교회,
예)육군소장, 정치학 박사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의 친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며 보호 인도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 하나님의 열매에 관하여 알아보고 로마서에서 강조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지 소개하고자 한다. 기대하시려!!!

고린도서 시작 부분에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 함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신묘막족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은 것이다. 이는 이성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

감주어졌던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기록한 말씀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나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사정을 사

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고전29:11)고 성령의 본질 즉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눈에 보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청조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임을 알아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신묘막족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놓은 것이다. 이는 이성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

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 힘이나라"(고전2:12-14)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불과 유흥불에 타는 지옥의 영벌과 운간 더럽고 흉악한 어둠속의 범의 지옥의 영벌을 면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군 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세상의 영을 죄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육신을 죄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죄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나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굽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라"(롬 8:5-8)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것을 말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며 자혜와 능력과 평안의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사도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려하나니라"(고전3:16-17)고 정체성을 말씀하시며 특히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육신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고전3:21-23)고 말씀하였다. 사람은 충성할 대상도 믿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각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있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3~7)고 말씀하였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라"(고전12:8-11)고 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속도>

SAMJIN 삼진제약

발열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신성우 교수
아신대 설교학



3일간 대구달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려 SRT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고향인 대구에서는 수년 전, 대구서문교회 설립 106주년 주일 대예배 강사로 왔을 때 이후 아주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샘이다. 달서교회는 대구서문교회에서 5년간 사역할 때 자주 지나갔던 가까운 이웃교회이다. 박창식 담임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 2년 선교로서 총회일도 활발하게 하시고, 달서교회에서 수십 년

간 사역을 하신 귀한 분이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1층과 2층에 많이들 참석하셨다. 이 교회는 종각 때 가끔 만났던 이종사촌 누님이 권사로 계시는 곳이기도 하다. 설교 중에 보니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둘째 누님과 나란히 앉아계셨다. 또한 맨 뒷줄엔 대구서문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구를 같이 하고 아주 친했던 집사님 두 분이 참석한 게 멀리 눈에 들어왔다.

한 분은 여전도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시다. 집회를 마친 후 이종사촌 누님들과 몇십 년 만에 반갑게 해후했다. 두 분 다 긴 세월을 베껴가지 못하고 할머니들이 다 되셨다. 여전도사님과 여자 목사님은 그간 가끔 뵙긴 했으나, 수년

만에 만나다 보니 두 분도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신 상태였다. 모두 반가운 분들이다. 교회를 떠나 호텔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데, 두 분이 로비까지 오셨다고 연락이 왔다.

내려가서 한 시간쯤 대화를 나누었는데, 두 분이 나라 걱정이 크셨다. 여리모로 위태로운 이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다.

집회 첫날 설교 시작부터 나라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지금은 베옷을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할 때다.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큰 차이가 없다. 악하고 이기적이 짜이 없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무안공항참사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가슴 아

파하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도 올면서 기도해야 한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인재가 발생했다. 모두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리당락만을 추구하다가 더 큰 불행을 겪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다.

SRT를 타고 오면서 말씀을 읽었다.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무겁고 두렵게 다가왔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다.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다.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자는 그

대로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움을 행하게 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의와 거룩을 계속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전자에 속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고, 후자에 속한 사람은 마침내 상을 받을 것이란 상반되는 의미이다.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다. 악과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편 박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에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지금도 우주와 피조물과 나라를 통치해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나라와 정치가들과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 모두 긍지과 기도에 동참하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악 된 모습을 먼저 보고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다.

새해에 꼭 해야 할 결심

박진호 목사
멤피스카비우즈한인교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이다. 여호와 앞에 잠자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시 37:37)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신자도 올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해야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지, 가정 예배를 보아야지, 등등 온갖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니 큰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어버립니다.

새해 결심이란 365일 내내 실천하겠다는 뜻이므로 며칠만 빠트리면 이미 실패했다는 실망감이 먼저 앞서 버립니다. 그러나 365일 중에 165일을 실패하더라도 200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었다고 바로 포기하면 3일 성공하고 362일을 실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건너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단은 자꾸 계속해야 합니다.

결국 새해 결심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흔들어버리는 의지력과 비례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인내심이 늘어나는 더 중요한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견디는 데 있어 가치가 있는 일이라야 견딜 수 있는 법입니다. 운동선수가 지옥 같은 훈련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

와 명예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가 새해 결심을 실천하는 데는 사실 인내심만으로는 끝 없이 부족합니다. 불신자는 현실적 목표를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달성하려 하기 때문에 믿을 것이라고는 자신의 의지력뿐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줄기차게 파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디아트나 금연 같은 목표도 의지력만 강하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만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신자의 영적인 결심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방해가 따릅니다. 자기 속에 남아 있는 죄의 본성, 주위 사람들의 편 박, 세상 쾌락의 유혹 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월 새 없이 나타나옵니다.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협착하며 동행하는 사람의 적어서 외롭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자연히 인내할 수밖에 없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는 절대 의지력이 능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어지간한 진보가 있어도 걸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그럴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중지하도록 만들려 듭니다. 신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지쳐 쓰러지는 것만이 사단의 존재 목적입니다. 정말 어지간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새해 결심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끝까지 실천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새해 결심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농구 코치였던 존 우든은 “그들은 나를 코치라 부른다”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있어서 인내가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고 만다는 것이 언제나 나의 철학이다. 그 말은 작전 계획을 이행하는 인내를 말한다. 우리 팀에게 항상 우리의 작전대로 경기하라는 것만 강조한다. 우리가 우리의 시합을 하고 우리의 경기 방식을 지키면 결국에는 등수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망쳐버리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자기 팀의 방식과 작전대로만 경기를 하겠다는 인내가 자신의 코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거나 그래서 꼭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를 방식과 작전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잘못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팀의 등수보다는 모든 멤버가 정말 후회 없도록 게임을 하는 것에 훨씬 가치와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도 그대로 잘 나왔을 것입니다.

새해 결심도 자꾸 일의 결과에만 매달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과실을 반드시 맺고 말겠다는 욕심이 앞서면 일의 내용에는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내용은 마음에 안 들면서 결과만 소망하면 그 일을 이를 열정과 힘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예컨대 성경 통독의 경우만 해도 그런 결심과 노력은 가상하지만 자칫 나도 성경통독을 한 번 했다는 과실과 자랑에 마음이 먼저 가 있어선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는 재미와 기쁨을 느끼야 만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로선 성경이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어 내용에 관심을 접종하기 힘듭니다. 그런 때도 현재 예정된 만큼의 장수를 읽었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성경에 과연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한번이라도 꼭 알아보고야 말겠다는 소원이 앞서야만 합니다.

본 시편 기자는 신자가 인내심을 이룰 수 있는 비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의지력만으로 성공한 자들을 부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잠자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근거는 여호와가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진정으로 맛보아 아는 신자라면 어떤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편 박과 사단의 시험이라도 잘 참아내며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의를 잠자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설날 아침에 한 영적인 결심들을 한해 내내 흔들림 없이 이를 수 있으려면 물론 의지력을 키워야 하고, 그 맷혀질 열매를 소망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결심한 목표들을 수행하는 일들이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하는 일들이 진짜 재미있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도 너무나 성실하게 선하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결심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를 불러들어 주고 있음을 성실하게 확인할 때 그분이 그 결심을 이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새해 아침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오직 하나님의 성실함을 날마다 새롭게 맛보겠다는 소원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통독, 새벽기도, 가정예배, 등등 모두가 하나님의 성실하신 선을 맛보는 일인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성실하신 선을 맛보지 못하면 그 일을 하루라도 지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올해에는 오직 한 가지만 역으로 결심하기를 감히 권합니다.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어떤 신앙행위를 하든 자꾸 내가 성실해지려는 결심을 깨트리는 결심을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욕을 포기하고 대신에 그 일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느껴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주님을 떠나서는 그 가지되는 신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환난과 사람들의 편 박과 사단의 방해와 자신의 죄가 자꾸 자신을 지치게 만들더라도 그래서 다른 모든 결심과 목표들은 다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끝까지 망치지 말고 자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성실하심 안에 내가 성실하게 잠자 있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로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만을 날마다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슴이 사방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이 없는 심령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하고 애통한 심령 곁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또 갈급함이 없는 심령에는 어떤 은혜가 심겨져도 전혀 은혜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주님의 성실함을 제대로 맛보아 할 때에만 신자도 주님과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결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만은 그 목표를 꼭 성취하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실패를 부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그 일을 통해 맛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실로 식물로 삼지 않고는 인내를 제대로 이를 수 없습니다. 역으로 그분의 성실로만 식물을 삼는 신자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

김희보 은퇴 목사
예장 통합 용천노회



[말씀과 명상(14)]
분노의 포도: 스타인벡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나훔 1:8).

여호와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한 통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께 복종하게 되고야 말리라는 사실이다. 즉,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미국의 스타인벡(John Steinbeck, 1902-68)은 즐겨 성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작품을 썼다. 특히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1939)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지만,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정을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에서 빚어지는

상황에 비유하여 묘사한 작품이다. 오클라호마에는 올에도 폭풍이 불어 닥쳤다. 조드 일가는 빛 때문에 땅을 자본가에게 빼앗겼다. 조드 일가도 “젖과 끓이 흐르는 땅” 일자리가 많고 임금(賃金)도 비싸다는 전단(傳單)을 본 것이다.

조드 일가는 돈을 모두 털어 낡은 트럭을 사서 서부를 향해 떠났다. 첫날 길에서 노숙(露宿)하면서 할아버지가 죽었다.

잇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조드 일가는 뉴멕시코를 지나고 애리조나의 산들을 넘어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렀다. 대사막을 지나갈 때에 할머니가 죽었다.

국경 캠프의 설비는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었다. 일자리가 있다 하여 먼 곳에 찾아갔다. 그 일자리는 파업을 일으킨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임시적인 일당(日當) 노동이었다.

그날 밤 조드의 아들 톰은 동맹파업을 하는 현장에 갔다가 감시인에게 두들겨 맞았다. 톰은 얼굴에 부상을 입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

가까스로 찾은 일자는 목화밭에서 솜을 짜는 일이었다. 그 일당(日當) 임금(賃金)은 1 달러도 아닌 90 센트였다. 온 가족은 그 일이 라도 해야만 하였다.

장마철이 되었다. 이제 솜을 짜는 일자리도

없었다. 그런 어려움의 북새통에서 조드의 딸 ‘사론의 장미’는 해산하다가 죽은 아이를 낳았다.

다음날 아침, 비를 피하여 조드 일가는 빙창고에 갔다. 그 창고에는 장정(壯丁) 한명이 쓰러져 있었다. ‘사론의 장미’는 그 사나이 머리를 불들고,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자기 젖꼭지를 끊어 죽게 된 사나이의 입에 물려주면서 신비한 웃음을 지었다.

이 작품은 1930년대의 불황기(不況期)에 천재(天災)와 악덕지주들에 의해 갈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수십만 명의 가난한 생태(生態)를 냉정하게 묘사한 기록문학이다.

고물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달려 캘리포니아로 향해 가는 조드 일가를 비롯한 구직자(求職者)의 무리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사십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다.

‘사론의 장미’가 사나이의 입에 젖꼭지를 물리며 신비한 미소를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온갖 시련을 겪으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역사(歷史)를 주관하는 신(神)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애굽의 백로도 가나안의 거인족(巨人族)도 그리고 기계문명도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 사이

서병채 목사
케나 멜빈대학교 총장



도 종종 들어가보곤 했는데, 캐나다의 한 신학교 흠피에 들어가보니 배너에 예쁜 글씨로 세 개가 써 있었다: Knowing, Being, and doing. 알고, 되고, 행함이라는 세 단계로 보여진다. 신학교이니 의미있는 슬로건이라 생각된다.

사실 우리는 종종 “알면 바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흠피에는 중간에 being을 넣어 “알고, 되고, 행함”이라는 세 단계를 얘기했다.

그러면 된다는 Being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추측에는 ‘아는 것을 내것으로 만드는, 즉 태도’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이해하고, 나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천하라’는 말로 다시 생각해본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진행에서 종종 두 번째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즉 시작과 끝만 생각하지, 필요한 과정은 소홀히한다는 것이다. 그 신학교에서도 이런 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중간단계를 고려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어쩌면 멜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doing 이전에 being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멜빈 목사님의 자료는 참 많다. 물론 시스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의 자료들도 있다. 물론 이것들은 시역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되게하는 데에는 필수적이다. 나도 이런 것은 십분 활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깊이, 그리고 장기적인 사역이 되게 하는 데에는 being이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 시대에 실력이란 것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편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being)에 대해서는 많이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자기성찰에 대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성품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社說

나라 위해 기도하는데 다른 말이 필요한가

새해 들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연이은 탄핵사태로 빚어진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신앙적 결단이 그 배경일 것이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회의 출발을 알린다. 그로부터 한주 뒤인 18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주 포항 등 전국 7개 도시로 확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로 ▲인천 자유공원 ▲대전 대전역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로터리 ▲전주 풍남문광장 ▲포항 영일대광장에서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이 기도회에 ‘세이브코리아’란 특별한 명칭이 붙은 건 미국의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중 한사람인 고든 창 변호사가 SNS를 통해 ‘한국 국민들이여, 지금 나라를 구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낸 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인들에게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도로 무장했음을 알리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기독회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졌다.

기독회는 하나님께 비로소 일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오늘의 이 난국을 해쳐나가는 신앙의 발로인 것이다.

이 기도회에 앞장 선 사람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다. 손 목사는 코로나19 시기에 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를 금지하자 끝까지 항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워湿润 목회자 중 한 사람이다.

부산에서 목회에 전념하던 그를 거리로 부른 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동성애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허용 판결이다. 손 목사는 사법부가 법적 부부에게만 주는 자격을 동성애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으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이어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이란 절박한 위기감이 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으면 나라와 한국교회가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설득에 나선 끝에 지난해 100만명이 참가하는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성사시켰다.

사실 교회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설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다. 교계 인사 중엔 매주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보수단체 수장도 있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교계 안에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는 나라와 사회의 상황은 한국교회에 더는 침묵하며 소극적인 자리에 머무는 다른 말이 필요한가.

물러선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손 목사가 지난 3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취지를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이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얹압하는 전제주의 국가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나라가 어지러운 시국에” 모두가 잠잠하다. 만약 여기서 교회마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교회는 상상으로 여기던 일들이 실제 눈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어렵게 이루어진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대통령의 한반 비상계엄 선포로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초래된 모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 착오에 있었다고 간단히 결론지을 수 있을까. 야당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정치적 암박의 수위가 과연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는 순수한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의 국가적 혼란이 대통령에서 기인했다면 ‘연쇄 탄핵’에 걸려 무려 29번이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탄핵 소추를 빌의하고 줄곧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부른 애당이 이제 와서 현재 심리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데 아연 질색하고 있다. 이 또한 당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벗어나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데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해산 요구를 수용하며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당시엔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동안 국정 발목잡기에 ‘울인’하며 민노총 등 전보세력과 규합해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부르짖었던 배후에 종북 세력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작용이 있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당시 많은 교계 인사들이 교회가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국이 이토록 어지러운데 왜 한국교회가 잠잠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명제 앞에 이견이 없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절박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한국 교회에 기도해야 한다는 대명제와 방법론까지 종족 시킬 대안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위기에 처한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가.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대한민국 발전의 비결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34)

이호 목사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제 6 장 대한민국의 개혁,
자유와 번영의 조건

대한민국 발전의 비결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연구 대상이다. 질문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던져진다. 수평적으로 따져보면,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새로 세워진 나라는 무려 140여 개였다. 그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가장 빠른 속도로 불가리하게 가슴 아픈 희생을 치르는 했으나, 대가를 최소화하면서 성취해냈다.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수직적인 질문도 마찬가지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고 무너졌다. 한때 융성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때조차도 백성들 사이에는 가난과 무지, 굶주림이 만연했다. 대한민국 직전의 나라, 조선의 경우를 보아도 분명하다.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에는 세계에 내보이기 부끄러운 기록들이 계속 반복된다. 518년 조선 역사상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어딘가에서 흥년이 들어 누군가 굶어죽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을 48권의 책으로 펴낸 원로 극작가 신봉승은 조선인들의 경제적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백성들이 초근 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한다.”

“초근목피”라는 말에 가슴이 저려온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북한 땅에서는 지금도 나무 껍질을 먹고 풀뿌리를 캐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허하다. 필자는 실제로 압록강과 두 만강을 건너 만주 별관에 팔려다녔던 탈북자들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제녀름으로 팔려 다닐 걸 알면서, 왜 탈출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면서, 어느 정도 답을 예상하면서 질문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들려왔다. “나무 껍질을 5년 10년 먹으면 사람이 미쳐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발 나무 껍질 먹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본래 초근목피였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초근목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비단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잘 먹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 역사학계의 원로 유영익은 그 공로를 건국의 주역들에게 돌린다. 대한민국 조창기에 국정 주역들이 추진하여 성사시킨 제도 개혁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가 열거하는 제도 개혁들은 농지 개혁, 교육

개혁, 강군 육성, 여성 해방, 기독교 교육 등이다. 이런 개혁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유사 아래 처음으로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동시에 그것이 1945년 이후 탄생한 여러 신생국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대한민국 발전의 비결”이라는 유영익의 연설문에서 일부를 인용한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은 제 1공화국기(1948-1960), 그중에서도 특히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건국 조창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일군의 압법 의원 및 행정 관료들 - ‘대한민국 조창기 국정 주역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 - 이 신생 공화국을 미국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한 ‘모범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일련의 획기적 제도 개혁을 통해 이 나라의 ‘우매한 백성’을 유능하고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매한 백성’ 안에는 폭발적인 잠재력이 숨어 있었다.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경제적으로 굶주리며 교육적으로 까막눈이었던 동안, 그 폭발성과 잠재력은 숨도 못 쉰 채 놀려있었다. 하지만 누르던 힘을 치워버리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기회를 주고 교육을 제공하자, 수백 년 놀려왔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솟구쳤다. 그 솟구치는 활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다.

그것은 유영익의 연설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과 같이, 이승만과 건국 주역들의 위대한 공헌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이승만의 가슴에 심기었던 불꽃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불어 맹렬한 불길로 타오른 결과였다.

그는 스물아홉 살에 지은 「독립정신」에서 교육을 통해 백성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서른 살에 쓴 〈제국신문〉 논설에서 “이는 토지 인물이 남만 못한 것이 아니요, 다만 기풍을 열어주지 못한 연고라, 책망이 위에 있는 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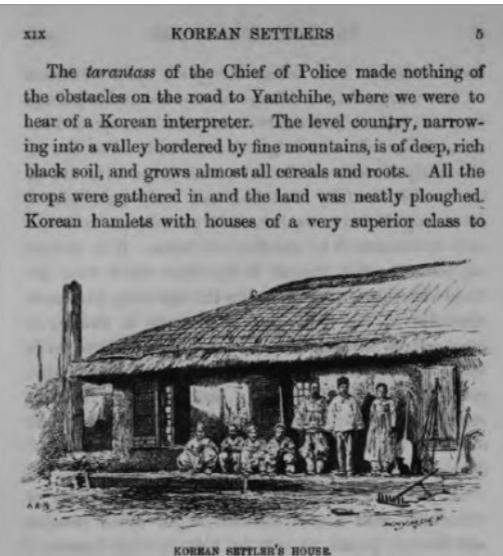
우리의 땅, 우리나라 사람이 못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기풍을 열어주지 않고 억누르고 죄이고 괴롭히고 달았기 때문에 낙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위정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이승만의 생각이었다.

유영익이 열거한 대한민국의 제도 개혁들은 모두 백성들의 기풍을 열어주고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나라 국민들을 향한 이승만의 기대와 애정과 예측은 적중했다. 활력을 되찾고 기운을 회복한 한국인들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향하여 질주했던 것이다.

한반도의 우매한 백성이 새로운 국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내다본 외국 여인이 있었다.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 여사이다.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된 저명한 지리학자였다. 청일 전



이사벨라 버드 비숍 ©위키백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중의 한 쪽. ©위키백과



비숍여사가 타고 다녔던 나룻배 ©자료사진

쟁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두루 여행했다.

그녀가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한국어 번역본에는 “백년 전 한국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책을 친히 읽어보면, 부제가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1894년부터 네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11개월에 걸쳐 현지답사를 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여성들의 우상’으로 불릴 만큼 지명도가 높았던 세계적인 지리학자가 최상층 왕실에서부터 최하층 빈민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속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쓴 책은 중요한 정보들을 수없이 담고 있다.

그녀가 방문했던 조선은 멸망을 향해서 기울어 가던 나라였다. 이사벨라 비숍은 말한다.

“나는 서울을 밤낮으로 조사하면서 그 왕궁과

용할 수 없이 궁핍한 삶을 보았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기록을 남겼던 그녀의 눈에도 조선인들의 가난은 ‘형용할수 없이 궁핍한 삶’ 이었다. 그녀가 만난 한반도의 조선인들은 무능력했고 게을렀고 도무지 의욕이 없었다.

그런데 시베리아의 한국인 정착촌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시베리아 프리모르스크의 한국인 마을들에 대한 여행기는 성공담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멋진 지역들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개척된 것이다. 그에 비해 비참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거의 눈에 띠지 않는 중국인들의 집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농장 경영자로서 농장의 소유자로서 한 한국인들은 자신의 토지를 최고의 것으로 만든다. 여행자들이 내가 이 곳의 한국 가정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은화한 친절과 더 깨끗

하고 더 안락한 편의 시설을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비숍의 증언은 극단을 오간다. 조선의 임금이 있는 서울에서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가난을 보았다. 반대로 조선의 빈민들이 정착한 시베리아에서는 더 이상 안락하기가 불가능한 편의 시설이 있었다. 그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 사람의 문제는 곧 정치와 제도의 문제였다. 비숍은 말한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한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크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한 부농(富農)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배고픈 난민들에 불과했다.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한국에 있었으면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처럼 살았을 백성들이, 시베리아에 옮겨놓았더니 근면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 차이 점을 넣은 것은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정직한 정부’였다. 비숍 여사는 한국에서의 목격담을 말한다.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지거나, 심지어 사치품인 놋쇠 식기를 샀다고 알려지기만 해도, 근처의 텁텁스러운 관리나 그의 앞잡이로부터 주의를 받게 되거나, 부근의 양반으로부터 빚을 갚도록 독촉당하는 식이었다.”

비숍의 기록에는 한반도 전체가 모두 담겨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 다시 말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녘에서는 가망 없고 기약 없는 삶이 이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입으로는 ‘봉건 태피’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조선식 봉건제를 더욱 악화된 형태로 고수하고 있는 북한 집권 세력의 책임이다.

반대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 남녘에서는 비숍 여사가 쓴 단어 그대로,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승만과 건국 세력들의 업적이다. 〈 계속 〉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도서문의 010-6801-8933

CCTV 설치·증설·보수 전문
사업장, 빌딩, 주차장,
공공기관 등 원하는 곳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문의전화 1544-0529

CMnet
씨엠넷

홈페이지 www.cplace.co.kr 전화번호 02-6052-6791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토요반) 8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반)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²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낫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일어나라 빛을 빌하라 이는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MGBC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기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들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GOSKA ✓ 보온 발열조끼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특별할인
파격행사

개인 및 단체주문 환영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 세련된 실속 주머니
▲ 단계별 전원버튼
▲ 뒷쪽까지 브랜드마크
▲ 더 얇아진 옆모습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파격행사가 ▶ 98,000원(밧데리 포함)

색상 :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 90(S), 95(M), 100(L), 105(XL), 110(XXL)

온도조절 3단계 ▶ 고온(적색) 45°C / 중온(백색) 35°C / 저온(청색) 25°C
※ 배터리 시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 태영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경기 예술 신학원 개원(학부)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개원 목적을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
(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경력 및 출연작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싸르뜨르작, 이강렬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세익스피어 작. 오셀료 출연 등

사무처장 **경기만** 목사

학력 및 경력
한동대학교 영문과 졸업
대구카톨릭 교육대학원
장신대학교 대학원 졸업

교수 **유제상** 목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연극과 졸업
한영실천신학대학원 졸업
전 KBS 드라마 성우
연극출연작
육혈표 강도

교수 **강두남** 박사

학력 및 경력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구약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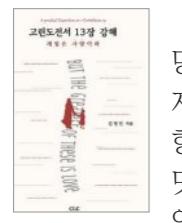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 및 수업	3월 첫주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수업 졸업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개혁신학교 신학 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지구촌 복음 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사랑의 교회 내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길벗교회 김영민 목사,
‘사랑 장’ 고리도전서 13장 강해



저자는 책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원형을 볼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의 진수(眞髓)를 맞볼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아가페 사랑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충만히 임했다. 사랑받을 조건과 사랑받을 자격조차 전혀 없는 자들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다.

그는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끊임없이 샘솟고 있기 때문

이다(롬 5:5).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 삶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견고한 기초와 토대도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떠한 열심이나 헌신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무가치하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섬김, 교육, 전도와 선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성패(成敗)는 바로 사랑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테어났고 사랑함으로 자라간다. 사랑함으로 변화되고 사랑함으로 성숙한다.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사랑함으로 죽는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에로스(이성 간의 사랑)와 스토르게(부모의 사랑)와 필레오(우정) 등, 인간의 모든 사랑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근거

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능히 끊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랑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면류관 중의 면류관이다. 보석 중의 보석이다. 사랑은 지고(至高)의 것이며, 최고(最高)의 것이며, 최상(最上)의 것이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체험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제로 체험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또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1월, 작가들의 말말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하나님(하) 엘로힘’이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장엄’의 복수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위엄 있는 신적 존재, 혹은 왕을 기록할 때 종종 복수로 기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사용된 복수형을 ‘장엄’의 복수라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태초부터 등장하신 하나님은 장엄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흥미로운 점은 복수의 하나님인 ‘엘로힘’이 취하는 동사형태가 단수형태인 ‘장조하다(하), 바라)’를 취한다는 점이다. 복수가 행동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양형주 평신도를 위한 쉬운 청세기 1

작은 교회 사역자를 위한 설교컨설팅

신간 ‘설교가 맛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설교는 밥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교는 생식이 아니다. 재료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재료(본문)를 가지고 삶과 끓이고 뒤집고 양념으로 간을 해서 식탁에 앉은 가족(성도)들에게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사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요리(묵상하고 고뇌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말씀은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맛을 안다”고 했다.

이어 “설교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설교학 박사가 있느냐,

언번이 탁월하느냐가 아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를 내는 것은 바로 준비에 있다. 고수는 다르다. 고수는 설교의 맥상을 잡고 간다. 설교의 맥상을 잡고 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설교 준비에 대한 시간이 늘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충분한 목상과 연구를 통하여 양질의 설교를 주도적으로 재생산해 낸다”며 “가능하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설교마인드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 날 저녁에 다음 주 본문을 가지고 아웃트라인을 대체적으로 잡아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빠르면 목요일,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에는 주일오전설교원고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토요일은 다 준비된 설교문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반복,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올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스스로의 설교가 편향되어 있지 않으니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한 쪽 면만의 하

나님만 설교하시는 않는지, 나의 관점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는 않는지 말이다. 설교자는 성도와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그에 적절한 말씀으로 섬기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구를 열어주는 자세를 늘 경지해야 한다”며 “제3자는 성도의 변화에 맞추어 이제는 목사의 설교도 변화해야 한다. 청중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짜임새 있는 탄탄한 구조, 커뮤니케이션의 개발, 공감가적인 설교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리고 그려져야 한다. 또한 적용이 구체적이고 현장성이 있어서 성도의 삶에 도전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예수님도 청중의 눈높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당대인에게 친숙한 예화로 복음을 전하셨다. 예화는 금기시 할 이유도 없고 결코 보조적인 존재도 아니다. 도리어 예화는 성경의 진리가 청중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통합하여 본문의 해설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설교의 필수적 형식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해석된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소개한다면 그 보다 더 정확하고 실제적인 적용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청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총 31,027절을 믿는 시작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말하는 청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권위와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곱의 정체성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늘 요동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곱은 다리를 절면서 기우뚱거리며 걷지만 그의 내면은 어느 때보다도 평안해 졌습니다.

주경훈 ‘온 가족이 함께 쉽게 드리는 가정예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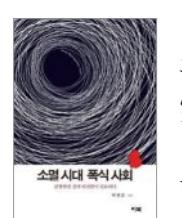


복음서는 여러 편의 드라마와 같다. 작가가 매 편마다 슬쩍슬쩍 흘려주는 떼밥처럼, 복음서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자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자기 성도들만 은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여러 복음답자들에게까지 흘러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복음서들이 너무 ‘경전’으로 여겨지는 바람에 생기를 잃어버렸다.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복음은 고정된 형태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서 고상한 언어를 쓸 필요 없고, 경건한 분위기를 따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셨다. 극도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경악했지만, 사람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인데 어찌 고정된 틀로 그들을 움직이겠는가?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자들, 매개물이든 유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전달도구가 아니다.

김현정 ‘마가복음 해석서 11-5장’

책 ‘소멸 시대 폭식 사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진단하다

균형발전 실패와 대안을 모색하는
박현갑 논설위원의 고발과 제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반복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하는 책 ‘소멸 시대 폭식 사회’가 출간됐다. 저자인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3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촉적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현갑 논설위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단순히 인구 유입

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인 폭식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민 삶의 전 영역에서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며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자원과 기회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0년 이상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모델 구

축을 제안하며,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현갑 논설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의 공공기관 한 곳이 가진 가치가 모래알 수준이라면 지방에서는 바위덩어리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수도권의 폭식 사회를 해체하고, 삼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고발과 제언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균형발전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각성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내래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파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누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신교회)

날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1)

이 글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로크의 인식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기독교 인식론으로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참고: 에드워즈의 존재론은 뉴턴과 연결된다면, 인식론은 주로 로크와 캠브리지의 신플라톤주의자와 연결된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로크의 인식론을 참고하여, 인간의 신 인식론은 감각적으로 주입된 성향, 경향성이라고 증명한다.

로크 - 타블라 리사 --- 감각 --- 사물 --- 단순 관념(감성적 지식) --- 복합 관념(이성)

에드워즈 - 인간의 마음 --- 감각 --- 하나님(성령의 주입) --- 성향, 경향성(감성, 이성)

〈로크와 에드워즈의 인식론 비교〉

에드워즈는 인간 자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물론 사변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적으로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 로크를 참고해 보자. 로크는 우리의 마음에는 본유 관념이 없다. 어떤 실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신 감각이 있다. 이 감각에 1차 성질이 도장처럼 찍히면 단순 관념이 생기고, 이것이 복합되면 복합 관념이 생긴다.

즉, 인간의 마음은 수동적이지, 능동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드워즈는 인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역사하신다. 마음에 역사하실 때 성향과 의지가 발생한다. 성향과 의지란 이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성향과 의지란 이미 이성을 넘어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하자. 먼저 감각을 통해 느끼고 그다음에 해석된다. 즉, 감각의 충격에 의해 이성으로 그것이 넘어간다.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이 발생한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감각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듭님을 체험했다. 그 충격은 곧 감각을 움직였고, 이성을 움직였고, 의지를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셨다. 따라서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의 지성과 의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의가 무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에드워즈의 거듭남의 경험을 알 필요가 있다. 로크의 사상이 에드워즈에게 매력을 준 것은 바로 본유 관념의 없음과 인간 감각의 수동성 때문이었다. 이미 에드워즈는 이런 방식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1차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1차 성질을 본유 관념으로 볼 것인가, 감각으로 들어오는 외부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단순 관념이 어떻게 복합 관념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내적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경향성의 개념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과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의 경향성이 재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옳게 규명해냈다.

이 논문은 비교적 초기에 쓴 것 같다. 로크와 비교한 부분까지는 잘 되었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의 경향성 개념이 설명되지 않았기에 에드워즈의 신 인식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이에 대해서 이상현 교수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을 참고하면 좋다).

또한 중도언약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설명한 부분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에드워즈는 중도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 언약을 따랐다.

이경직(천안대, 기독교 철학 전공)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18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중심인 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타월한 철학자 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프랑스 철학자 리옹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이다. 또한 에드워즈가 식민지 상태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럽 대륙에서 태어났다면, 라이프니츠(Leibniz)와 칸트(Kant)를 잇는 철학자로서 불멸의 체계를 창시

했을 것이다(G. Lyon, *L'Idéalisme en Angleterre au XVIIIe siècle* (Paris, 1888), 406면 이하).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도 불린다. 당시에 물려받았던 기독교 신학의 전통을 새롭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에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데카르트주의 존 로크의 인식론과 아이작 뉴턴의 광학, 캠브리지 플라톤 학파의 사상 등이 깔려 있었다(S. H. Daniel, *The Philosophy of Jonathan Edwards. A Study of Divine Semiotics*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68면).

예를 들어, 에드워즈에 따르면 인간은 부족함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동기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는 충만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을 연상시킨다(J. Piper, *The Supremacy of God in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1990), 76-77면).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기독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독 자체에 어떤 능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보편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의 능력은 간단히 말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1)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눅 1:37).

2)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닌 마음 상태에서(약 5:16) 감사(빌 4:6)와 믿음(약 1:5)으로 하나님의 뜻(마 6:10)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4:13-14) 끊임없이 드려져야 합니다(눅 18:1).

3) 전능하신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시 18:6).

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시 17:6).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시 34:17).

또 다른 대중적인 사상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

답하는지의 여부가 우리 믿음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5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에 응답하십니다 (7-11절). 베드로는 기도 모임이 있는 집의 문에 다가가서 문을 두드리지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그가 참으로 베드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것입니다.

기독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흘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말이나 특별한 방법 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기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또는 몸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의 능력은 유물이나 아이콘, 양초 또는 구슬을 사용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하게 하며, 주께서 우리의 청원을 허락하시든 거절하시든 전능한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도 능력의 근원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뜻과 시기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갓퀘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Joshua 1:9 NIV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 command: 명령하다
- strong: (정신적으로) 굳센, 강인한
- courageous: 용감한
- discouraged: 낙심한
☞ for는 접속사, 의미는 because
-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송태훈 칼럼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자, 신약의 처음 예언시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



송태훈 목사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서 활동을 마무리한 이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약 400년 동안 신앙 공백기를 지나며, 영적으로 매우 훈탁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영적인 훈돈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이 그 땅에 소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매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가 나타나 타락한 땅을 회복시킬 것을 성경대로 믿고 있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했기 위해 출생한 남은 자 세례 요한의 부친 이름은 사가랴이다. 사가랴의 헬라어 '자카리아스'는 히브리어 '조가'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리야의 음사로 '여호와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을 지닌다. 그는 구약을 마무리 하는 시대 아비야 반열(班列)에 속한 제사장으로 성실하게 사역했다(눅 1:5). 주후 1세기 당시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의 반열은 매 6개월만에 한 번씩 교대로 바뀌면서 7일동안 성전에서봉사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제비뽑은 대로 각기 할 일을 정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분향하는 직무가 가장 중요했다.

제사장 사가라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자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실천하여 노력했다. 그들 부부에 대한 인근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델과 귀감이 됐다.

사가라는 그토록 신실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담당할 자녀가 없었다. 오랫동안 자녀 출산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당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자(無子)한 사가랴 부부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여기며 조롱하기도 했다. 무자한 사가랴 부부는 그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너의 간구함이 하늘까지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이를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했다.

주의 사자는 '요한으로 인하여 너와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고 제사장 사가라에게 한 마디를 덧붙였다.

천사는 계속해서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종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베이트로(엘)이나 베이트 레헴(베들레헴) 등이 좋은 예이다.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아버지의 집'이다. 인간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구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칭되었다.

성경 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친족-지파라는 3종 구조로 형성되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는 '아버지의 집'(베티 아브)으로 알려진 가족 공동체였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들이 모여서 더 큰 개념의 친족구조(마누파하)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 가장 큰 사회 단위인 지파(세베트)를 형성한다. 이런 구조 속

18-17)

사가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였지만 당시 매우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경수가 이미 끊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의심하는 불신양적 태도를 보였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자기의 말을 믿지 아니한 데 대해 악속이 성취될 때까지 사가라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도록 벙어리로 만들었다. 때가 되어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그와 동시에 사가라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다.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고 성령이 충만한 사가라의 입에서 나온 시는 구약 최후의 예언이요, 신약 최초의 예언시가 됐다. 그 예언시를 신학자들은 베네딕터스(Benedictus·죽도)라 칭한다.

사가라는 그이 입술에 놓인 아름다운 예언시를 통해 하나님에 가르쳐 주신 구

원과 구속의 방법을 마음껏 노래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서 종신토록 성결과 이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할 것이라 노래했다.

하나님은 죄없는 의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잘것 없는 사악한 죄인을 선택하고 불러서 의인으로 만드신다고 말하면서 그의 은혜와 긍휼을 높이 찬양했다(눅 1:18-22,62-64,68-79).

하나님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 구약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다. 그는 세례 요한이라 불렸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출산했다. 엘리사벳, 무자한 이스라엘

게 주어진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은 사가라 부부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뤘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실한 사역과 기도는 모든 고통을 이기며, 희망찬 세상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탁한 시기를 우리는 작금 살고 있다. 곁으로 건전하게 보였던 교회들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매우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됐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모임, 교회가 쉼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성실히 성경대로 감당한다면 21세기 사가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좀 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하며, 기본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신앙과 삶의 정도와 기본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사회가 침단화돼도 크리스천들의 기도와 말씀의 성실한 실천이다.

권혁승 칼럼 '집'(바이트)이란 어떤 곳인가?

구약시대의 가정
'아버지의 집' 이해(1)

권혁승 박사

에서 '아버지의 집'은 사회적 최소단위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베이트 아브'이다. 이는 '집'을 의미하는 '바이트'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의 합성어이다. '바이트'가 다른 단어와 합성되는 연계 형태가 되면, 한 음이 축소되어 '베이트'로 발음된다. '베이트 엘(엘)'이나 '베이트 레헴(베들레헴)' 등이 좋은 예이다.

구약성경에서 1,850번 이상 사용이 되고 있는 '바이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 거주지로서의 집이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거주지가 포함되는데, 천막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거주지(창 27:15)를 비롯하여 왕궁(왕상 7:1) 혹은 하나님의 성전(왕상 6:1)과 같이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도 '바이트'로 표현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이트'의 용례는 매우 다양하다. 집이나 궁전 혹은 성전과

같이 인간이 거주하는 구체적인 건물 뿐 아니라, 죽은 자나 동물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죽은 자의 거주지인 무덤을 '바이트'로(욥 17:13, 30:23), 거미가 살고 있는 거미줄을

'바이트'로 지칭하기도 하였다(욥 8:14).

이스라엘의 가정제도와 관련하여 '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된다.

(1) 첫째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집(house)이다.

이스라엘에서 건물로서의 집은 주로 나무나 돌로 지어졌다. 그러나 선사시대 기나안의 거주 형태는 동굴이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피신처로서의 동굴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소동을 탈출한 릇은 그의 두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지냈으며(창 19:30), 이세벨을 피한 엘리야도 동굴로 피신한 적이 있다(왕상 19:9). 건물로서의 집과 관련하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 집을 건축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이다(시 127:1). 이러한 강조는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암 5:11; 습 113:1).

(2) 둘째는,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을 지칭하는, 가족이나 권속으로서의 집(family)이다.

한 가족으로서의 '바이트'에는 우선적

으로 동일한 혈연관계로 구성된 사람들

이 포함된다. 노아의 가정에는 노아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포함되어 있다(창 7:1-7). 그러나 '바이트'는 혈연관계의 가족들 외에도 종이나 이방인 객들과 같이 한 가정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바이트'의 범위는 공동혈연관계를 넘어서 공동거주관계까지 확대된다.

(3) 셋째는, 동일 혈통을 지닌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보다 큰 개념의 가문(lineage)이다.

곧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한 가정의 영향력 아래에 여러 가족들이 예속되어 있는, 보다 큰 개념의 가문이나 족속 등이 포함된다. 때로는 가문보다 더 큰 개념의 지파나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포괄적 성격의 용례들은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바이트'가 단일 가족보다는 큰 개념의 가문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부계적 계보를 따라 가문의 시조가 되는 인물 이름을 '바이트' 뒤에 붙이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명칭들에서 거명되고 있는 인물들은 현존하는 이들이 아니라 과거에 그 가문이나 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이들로서, 각 가문이나 지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속력이 갖는다.

이런 포괄성을 지닌 '바이트'의 공

동체적 특성을 공동인격(corporate personality)이라고 부른다. 즉,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조상을 상기함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간격을 뛰어넘어 전체 집단을 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는 공동

체 의식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구약시대 가정은 단순한 거주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의식을 태동시키는 민족학의 산실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온혜 한 장

Happy NEW YEAR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20

基督日報

기독일보 www.cdaily.co.kr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
감발효 원액 함유



비건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교회오빠 종의 자기변호(2)

@자기변호로서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는 것 '나의 발명할 것이다'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다. 무슨 변호인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것이다.

1. 먹고 마시는 권리

- 이것은 8장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저들이 바로 우상의 제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잘 먹는데 바울은 어린 자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 오해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먹을 수 있으나 어린 자를 위해서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고 하는 것이다.

바울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외모만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른다.

2.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 이것은 7장에 결혼문제로 답변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과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 보라. 결혼한 자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과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상황에서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이 맞다.

자신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도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사례비에 대한 권리

- 구약에서 소의 임에 명예를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수고한 자에게는 수고



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들은 또한 바울이 자유자라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박취처럼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외모로 보는 자들은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니 오해한 것이다.

우리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다' (송경의 행위로서). 또 (반대로) 사람을 '(은혜로) 복주다'; 또한 (완곡법으로) '저주하다' (하나님이나 임금을 반역으로): - ×풍성하게, ×전적으로, ×전혀, 신성모독하다. 축복하다, 축복하다, 저주하다, ×크게, ×참으로, 무릎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여전히, 감사하다

1. 무릎 꿇다 -- 이것은 항복하는 복이다.

하나님을 알기에 행복하게 되며 그분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격적인 행복을 원하며 지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물리적인 힘으로 행복을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무섭게 힘으로 억누르며 복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분명 육신인 외모적 축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받아야 할 복이 있다. 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 1288 &rarr; B: 바라크

기본어군: '무릎 꿇다' 함축적으로 하

꿇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찬양하다 -- 시편 기자들처럼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되어서 나오는 찬양이 된다.

3. 감사하다 --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복이다.

우리의 감사는 일이 잘되면 감사하며 안 되면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하는데 잘 되는 감사는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패의 감사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간증보다는 실패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복인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다니엘의 고백이 복인 것이다.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복인 것이다.

4. 축복하다 -- 외적인 물질적 복이다.

솔로몬처럼 가난하여 떠나고 부하여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지 말고 빈 부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여 떠나기 쉬우니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목사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회가

나고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을 버리어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앞선 선진들

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복음을 위해서 자

신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생각하며

더욱 큰 축복을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골산 봉목사

왕은 누구인가



왕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본래 왕은 천지인(天地人)을

꿰뚫어 아는 이어야 합니다.

한자로 왕은 '一'를 세 개 포개어 씁니다.

천지인을 끊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수직으로 내려 그

어

임금 왕(王)자를 씁니다.

꿰뚫어 안다는 뜻입니다.

십니다.

그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이

권세를 잡아 왕이 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수탈하며

편을 가르는 그런 왕과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죄가 없으시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시지 않고

천지인을 꿰뚫는 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곧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신 주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은 왕임을 밝히

산마루서신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지옥에 간 빌게이츠

빌 게이츠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빌, 당신은 선 행도 했고, 악행도 했군요. 자, 당신에게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소."

그래서 빌이 지옥을 구경했다. 그는 화

씨 80도(섭씨 26.7도)의 기온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눈부신 해변을 뛰어다니

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천국

을 구경해 보니, 하프와 노래 소리 그리

고 찬양 같은 것들로 정말 좋았다. 그제

서 그는 천사에게 지옥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약 1주일 후, 빌을 보기 위해 지옥에

내려간 베드로는 악귀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빌을 발견했다. 빌이 말했다.

"아름다운 여자들과 멋진 해변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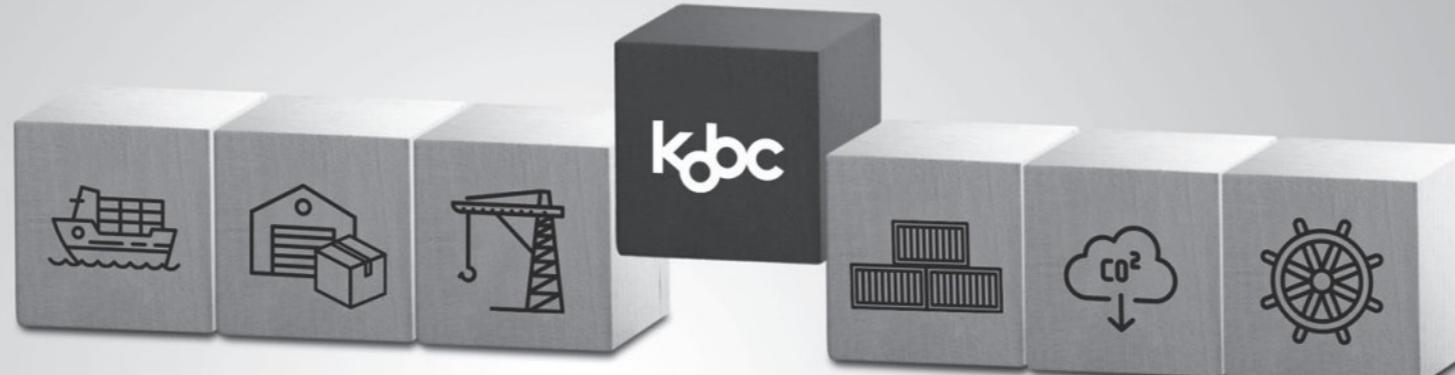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게! 데모버전이었어"

예수님닷컴 제공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왈도파의 신앙 “올라가라, 더 높은 곳으로!”

신앙을 평생 올곧게 지킨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결심으로 하늘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기도 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펑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다. 부자 청년이나 데미쳐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이탈리아의 북쪽 피아첸자(Piacenza)에 갔다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토리노(Torino)의 깊은 계곡 앙그로나(Angrona)를 방문했다. 그곳은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왈도파(Waldenses-이탈리아에서는 ‘발데제’라고 함, 1170)가 자리한 곳이다. 알프스 산자락을 등진 작은 도시로, 그 옛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들어온 사람들로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그들은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락한 삶을 던져 버리고 깊은 계곡으로 들어와, 높은 산자락의 경사진 비탈을 일구며 살았다. 지금도 그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그 터를 올곧게



자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 깊은 골짜기를 소중한 영적 유산으로 지켜가면서 말이다.

왈도(Peter Waldo, 1140~1218)는 본래 프랑스의 리옹 사람으로,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가톨릭 수사를 고용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기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일반인이 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였으나, 그로부터 무려 700년 전의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제가 라틴어로 전하는 설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추측하거나 더듬어 이해해야하는 정도였으므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왈도는 성경을 직접 읽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번역을 결심했다. 그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당시에서 알게 되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황형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갈급함은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 버렸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일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니 말이다. 그는 드디어 프랑스어로 완역된 사복음서를 읽을 수 있었고, 크게 감동했다. 그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왈도는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경 외에 비록 교황의 말일지라도 신뢰해서는 안된다고 여겼다. 그는 즉시 주님의 말씀 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대로 시행했다. 즉,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켰고, 자신을 죄는 자들에게도 지키게 했다. 그는 제자들을 성경대로 두 세 사람씩 짹지어 전도자로 파송했다.

왈도는 과송한 전도자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작은 행상을 겸하도록 당국에서 알게 되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황형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과 바늘, 머리빗, 여인의 장신구, 옷핀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팔아 생계를 해결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어떤 의

미에서 자립 전도였다. 고달프지만 순박하기만 한 시골 사람들, 가난하지만 한없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도자들은 깊은 산골의 초라한 마을들을 집집이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물건도 팔았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관심으로 돌보는 전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파격적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들은 펼쳐놓은 물건을 보인 후에, “또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 운동은 영적으로 몽말라하는 세상을 삽시간에 불붙게 했다. 마치 무더운 여름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13세기에 시작한 복음 운동, 이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한 미미한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돈도 조직력도 후원자도 없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작고 미천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그 결과, 그들의 복음 운동은 프랑스, 스위스, 중부 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중부 이탈리아까지 활화산처럼 옮겨붙었다.

그 운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복음의 종자가 되고 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들은 종교적으로 용인한 19세기 중반까지, 이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의 오솔길을 걸어 가야 했다. 이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 이해, 때때로 알프스 계곡을 흐르는 강물을 피로 빨갛게 물들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무려 600년 동안을 산속에서 약전고투하면서 버텨냈고, 계속된 펑박으로 무려 2백만 명 이상이 피를 흘려야 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활수칙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가정예배 그리고 깊은 집회였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렸던 동굴과 공부했던 신학교,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예배 드리기를 작성한 텁은 지금도 꽃꽂하게 남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도전하고 있다. 그곳을 지키는 왈도파 장로님은 말한다. 그 옛날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프랑스어

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주일에는 프랑스어로 설교를 듣고 있으며 무려 60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프랑스 말을 모르는 사람은 왈도파와 관계없는, 티저에서 이사온 사람이라고. 이들이 과거 살았던 계곡의 은신처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날 성도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응변을 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의 낭만과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무거운 심자가를, 그 먼 옛날 우리의 선배들이 비보스럽게 짊어졌던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는지 모른다.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야 말로 바보 같다고 여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신양은 결코 심자가를 외면할 수 없다. 왈도파의 선배들이 비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던 땅속 바위굴로 허리 숙여 들어가던 중, 바위에 이마를 콕찧고 말았다. 허리를 덜 구부렸기 때문이었다. 종일토록 바위에 부딪힌 이마가 아팠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너는 허리를 더욱 구부려라, 주 앞에서”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

사랑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No Love, No Worship

예배라는 단어는 수년에 걸쳐 정말 다양한 뜻으로 정의 내려지고 있으며, 그 중 어떠한 정의는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의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예배라는 단어는 적어도 나에게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온다. 예배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예배드린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예배 사역자들은 로마서 12장 1절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참되고 합당한 예배なり.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Jesse Shuster

기도에 충성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과 나누며, 순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애통한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십시오.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눈에 옳은 일을 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당신에게 달려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말기십시오.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 Jesse Shuster
기독교 녹음 아티스트이며 수년 동안 예배 사역으로 섬겼으며 현재 ID Boise에 있는 Tree City Church의 Worship Pastor에서 예배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니다.

오히려, “당신의 적이 배가 고프면 그를 먹이십시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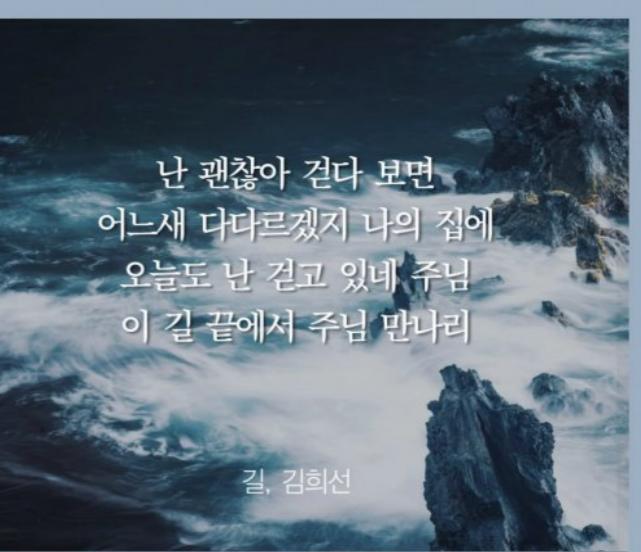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의 머리에 불타는 속을 쓰울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와우... 이것은 예배의 삽계명인 삼다.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해 보라. “사랑은 진실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사랑으로 응답한다. 진실한 사랑은 예배의 핵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자가 될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요하다. 요즘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

러므로 우리의 매일, 매초, 매분, 매시간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한다. 결국, 사랑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고,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찬양한 모습



난 괜찮아 걷다 보면
어느새 다 다르겠지 나의 집에
오늘도 난 걷고 있네 주님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리

길, 김희선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Dream, Universe & Love

2024. 10. 25.(금) ~ 2025. 2. 28.(금)

송파구 (사)잠실관광특구협의회

LOTTE WORLD TOWER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7회 청년작가 초대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2025년 첫 전시로 청년작가 초대전 「Soul and Spirit」을 개최했다. ©기미협



이번 전시에 참여한 청년작가 중 일부(왼쪽부터) 최지우, 정인영, 한혜영, 홍수빈, 이지혜 작가) ©백선영 기자



지상 1층과 지하1층에 걸쳐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백선영 기자

장원철 목사 “소망을 그려내는 기독작가 되길”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회장 신민선)가 2025년 첫 전시로 청년작가 초대전 「Soul and Spirit」을 열고, 개회예배를 드렸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 1010갤러리에서 개회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는 참여작가를 비롯한 협회 회원, 기독 작가 등이 자리했다.

이날 예배는 정두옥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함께 찬송하고, 장원철 목사(로고

스문화예술선교회 대표)가 ‘시간의 흐름과 성경, 그리고 기독미술’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장원철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때부터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경의 점진성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뿐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뒤에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한다. 이 소망은 하나님에 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목사는 기독미술의 지향점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은 이미 지난 과거이다. 그 안에 함몰되어 간힌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점진적 성경 계시의 시간성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낼 것인가. 이것이 기독미술의 핵심성이자 전

적으로 기독 작가의 땅”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신미선 회장은 “2025년 새해의 첫날, 그 설레는 새로운 창조를 짚은 청년 작가들이 활짝 열어냈다”며, “하나님의 창조와 아름다움의 회복을 소망하는 청년 작가들의 풋풋한 시각예술의 메시지들을 통해 새해 새 희망의 첫 밀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제7회 청년작가 초대전은 청년작가 13인의 신인작과 고백과 예술적 시선을 담아낸 평면·미디어·설치 등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6일까지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 1010갤러리」에서 열린다.

백선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힐링스토리(14회) 척 피니 50 신양에세이 김명준 목사(예수로교회) - 목상의 은혜	00 이의도순복음교회 열두광주리 새벽기도회 (2025년) 50 조건회 목사의 친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생방송] 2025 오직예수 신년 새벽기도회 (새 힘 얻으리)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풀림(115회) 30 TV강단 삼일(승태근)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100회) 일본 고베 2 30 복음강단 포항중앙교회 선별령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 이경은(진주초대) 30 생명의 말씀	00 365 새벽기도 2부 30 퀴즈프로그램 -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 (원준)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회) 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영어자막)(27회)	00 생명의 양식 대한 (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14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선교는 지금(19회)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 - 김서택 50 생명의 말씀 마산동부 - 유창근	20 말씀의 셀터 충천사랑의 (윤대영) 50 말씀의 셀터 소명중앙 (김대성)	30 휴먼네컷(3회)	20 맨투맨 처치(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13회)	3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10회) 50 노변담화(94회)
오전	8:00 20 신양에세이 유병곤 목사(새울침례교회)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50 매일 주와 함께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01-06 2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273회)	00 친양예배 주님께 말기는 시간!(149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05회) 요한계시록 48강	00 고품격 크리스천 치트 토크쇼 : 차록(51회) 30 비전메시지 새빛교와 김용일 목사
9:00	20 내가 매일 기쁘게(3473회)	50 말씀의 셀터 인천제일 (0제일)	00 [말씀] 반태호 목사 (방주교회)(50회) 40 Q&A 107 소요리문답(5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1회)	10 새롭게 하소서(1122회) 조태호 교수	00 성지가 좋다(464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 밤모 섬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20회)
10:00	10 백세특강 시즌3 - 김의신 박사 (7회 4강) 40 CTS두란노 성경교실 승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20 말씀의 셀터 에버그린 (김학필) 50 비전설교 거나안 (정경덕)	2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3회)	00 파워인티뷰(182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5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11:00	1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스페셜(3회)	20 비전설교 베이직 (조정민) 50 GOODTV 정오의 기도	10 [말씀] 황성은 목사 (창동영광교회)(199회) 50 크리스천 토큰 리더십(4회)	20 세상을 보는 창(239회) 50 만나다(9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100회) 일본 고베 2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47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생방송] CTS뉴스 30 수영로의 시간 - 이규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00 말씀의 셀터 백승 (이순희) 30 말씀의 셀터 하늘꿈 (신용대)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8회) 20 [말씀] 이건호 목사 (순기운대구교회)(63회)	00 TV강단 진주초대 (이경은) 30 TV강단 인천제일 (0제일)	20 비전메시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복상 3분 미리글(228회) 30 신양에세이 최규민 목사(충정교회) 40 주성민 목사의 친양의 기도 50 미라클모멘트 지금 이 순간(13회)	00 말씀의 셀터 임마누엘 (전당양) 3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올 사관학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22회) 20 CGN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144회)	00 올포월(594회)	30 고품격 크리스천 치트 토크쇼 : 차록(51회) 마음대로 연말 대상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1회)	00 휴먼다큐멘터리 - 사랑은 강물처럼 30 선교의 땅 턴자나아를 가다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01-06 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601회)	00 말씀의 힘 광석 (김동찬) 30 CBS 아카데미 숲(230회)	00 믿음의 리액션(14회) 강원도 홍천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오전	15:00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스페셜(3회)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 달리다꿈	00 [말씀] 류웅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263회) 40 생명의 삶 2025-01-06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8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04회) 로마서 30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말씀의 셀터 순복음참아름다운 (안병찬)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3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 (남기주새누리교회)(664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3회) 50 멋나는 교회(1회)	00 내 삶의 행복(13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CTS특집다큐 - 저출생 국복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4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 설동욱 목사	00 말씀의 셀터 거룩한빛운정 (유정상) 30 말씀의 셀터 영광의 (조이엘)	30 복음과 도시 클로키움 <맞춤전도>(1회)	50 영혼의 양식_산위의 마을 (김영준)	00 선교는 지금(19회)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천호제일 - 장이규 30 미라클모멘트 지금 이 순간(11회) 40 TV천양예배(42회) 천양교회	00 행복플러스 30 헤세드 위십 50 더 메시지	10 레디온(115회) 50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글로벌 톡터뷰(1회)	00 TV강단 당진동일 (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좋은나무 (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30 위대한 유산(36회)	00 말씀의 셀터 우리들 (김양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회>(35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 (곽승현) 30 TV강단 동수 (주학선)	00 비전메시지 전주산돌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10 힐링송(14회) 내 주여 뜻대로 20 생명의 말씀(301회) 금단 - 김정민	00 힐링스토리 10 비전설교 혜성 (정명호)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GOODTV 특별간증 - 감사특밤 (한소망)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오픈 스테이지(1회)	00 TV강단 순복음임당 (고경학) 50 크리스천킹덤 중앙성결 (한기체)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자구준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CTS뉴스 30 바이블 프로젝트(애니)(71회) 창세기 1-11장 개요 4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 중독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세요	5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2025-01-06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친양해> - 온누리교회 SNS청년부(10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05회) 요한계시록 48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64회)	1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7회)
22:00	10 [워킹 온 더 바이블] 성지탐방(6회)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승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10 2024 복음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 천사후원방송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01-06 30 휴먼네컷(3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 하소서(1122회) 조태호 교수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이인(457회) 20 소문난 성경교실(399회) 이태희 목사 두 번째 1강 그 잘 볼: 시경 속에 보물이 있다
저녁	23:00 00 설레이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30회) 올해는 감사! 새해는 살롬!	10 GOODTV 특별간증 - 2024 다니엘 기도회	00 젠센 프랭클린의 부용(455회) 30 생명의 삶 2025-01-06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8회)	10 더 콜링(141회) 30 목사님 궁금해요(85회) 50 친양예배 주님께 가는 시간(149회)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3회) 40 리비아초 위심 50 오정현 목사의 운천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179회) 50 주성민 목사의 친양의 기도 - 믿음과 삶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김현목 교수의 지피지기 상담소(3회)	1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4회) 50 성경풀팁 이것이 궁금하다(53회)	00 새예멘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6회) 20 말씀노트 -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트 시즌1(19회)	1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슨 20 디큐브리	00 [말씀] 백금산 목사 (예수기독교)(166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 (예수향남교회)(51회)	00 믿음의 대화 36.5(29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456회)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물었던 이야기(1회)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20 힐링스토리(40회) 척 피니 30 사랑과 구원의 밸자취 시즌2 - 투르키예(15회)	1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김영익 목사 (엘살롬교회)(352회)	30 TV강단 대연성결 (임석중)	00 만나 U(1회)
3:00	00 다시보는 CTS WEEK(33회)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543회) 318장 순교자의 홀린 피가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170회) 30 [말씀] 임채영 목사 (서부성결교회)(340회)	00 맷나는 교회(1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심 김하나 목사
4: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32회)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10 [말씀] 마크 칙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480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15회) 창세기 40강 50 CBS 교회소식(980회)	00 C채널 명성교 다시 복음으로(394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미래는
온다
새로운
모빌리티를
타고
이렇게**

· PBV
고객 맞춤형
디뮤직 모빌리티 플랫폼

· SPACE
수소연료전지기반의
다인승 공공 모빌리티

· AAM
도심 내 또는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HYUNDAI
MOTOR GROUP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증강현실로 경험해보세요

DICE
AI 기반 개인 물류함
인승 모빌리티

QR 코드